

석 사 학 위 논 문

감성시각 관점에서의 아트메이크업
작품 연구

2012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오 성 립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최희자

감성시각 관점에서의 아트메이크업 작품 연구

A study on an Art Make-up work by visual Sensitivity
point of view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오 성 립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최희자

감성시각 관점에서의 아트메이크업 작품 연구

A study on an Art Make-up work by visual Sensitivity
point of view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오 성 립

오성림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감성시각 관점에서의 아트메이크업 작품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오 성 립

인류는 원초적으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미적 본능과 욕구를 갖게 되었고 그 미적 본능의 표현 중 하나가 신체에 행해지는 메이크업이다. 현대에 이르러 메이크업은 신체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의 형태로 발전하고, 급성장하는 문화산업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지면서 종합 예술의 한 장르로 각광받고 있다. 아트메이크업 또한 종합예술의 한 분야로써 시각표현에 중심이 되는 예술로 대중설득과 미적 감동의 유발이라는 이중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예술과 감성, 문화를 함께 추구함으로써 아트메이크업의 시각예술을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시각에 의한 표현과 조형요소가 결합된 다각적인 성격으로 인간의 내면가치를 표현하는 중요한 문화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아트메이크업은 미의 아름다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잠재의식과 감성을 자극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감성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오감을 통해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다. 아트메이크업에서 느끼는 인간의 감성과 취향에 부합되는 이미지의 의미는 감성공간에서의 시각요소로 인해 인지된다. 단순히 시각매체로만 국한하여 파악하기에는 한계점이 내포되어 있지만, 결국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조화를 이루며 예술적 감성과 다양화, 전문화라는 복합적인 의미파악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대사회의 감성의 집약적인 지식에서 생성되는 감성시각의 관점에서 아트메이크업을 재조명하여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감성과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이론을 고찰한 후, 아트메이크업의 시각자료를 통해 감성시각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무경력 10년 이상 종사자와 관련학과 석사 이상자 10인을 대상으로 감성에 관한 1차 인터뷰를 실시한 후 인터뷰 결과에 따른 감성공간의 시각요소인 색감, 형태, 질감, 패턴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여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7점 제시하였다. 제작된 작품을 통해 2차 인터뷰를 실시하여 아트메이크업과 감성간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1차 인터뷰 결과는 감성공간의 시각요소인 색감, 형태, 질감, 패턴의 이미지는 디자인 계열의 통계적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인간에게 시각적 요소로 인지되는 감성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값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차 인터뷰 결과로는 연구자의 작품제작 의도와 유사한 응답 결과가 나왔다. 작품을 통해 작가와 대중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며, 시각측면으로 제한된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인간은 아트메이크업을 통해 감성이 자극되어진다는 것이다. 감성공간의 시각요소 중 색상을 통해 가장 빠르게 감성을 지각할 수 있었으며, 아트메이크업과 감성은 서로 일맥상통하였다. 이는 곧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시지각을 통해 감성, 감각적으로 느끼는 예술분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종합예술의 한 분야로써 작가와 대중들의 시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에 관한 제한성으로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실증적 자료 구축을 시도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입증하였으나, 광범위한 감성 영역 중 시각적 측면만을 다룬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아트메이크업의 감성예술 도입이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미흡한 부분을 후속과제로 남긴다.

【주요어】 시각, 감성, 아트메이크업, 예술, 감성공간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감성의 이론적 고찰	4
1. 감성의 개념 및 정의	4
1) 감각	5
2) 감정	6
3) 감성	8
4) 감성과 감정	8
2. 감성의 특성	11
3. 감성의 유형	12
1) 감성 공학	12
2) 감성디자인	12
3) 감성 경험	13
4. 감성의 요인	14
5. 감성공간의 시각예술	15
1) 감성공간	16
2) 시각정보 요소	17
(1) 색상	17
(2) 형태	17
(3) 질감	18
(4) 패턴	19

제 2 절	아트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21
1.	아트메이크업 개념	21
2.	아트메이크업 역사	22
3.	아트메이크업 유형	23
1)	페이스페인팅	26
2)	판타지메이크업	26
3)	바디페인팅	27
4.	아트메이크업 표현기법	31
1)	패턴에 의한 분류	31
(1)	구상적 기법	31
(2)	추상적 기법	31
(3)	그래픽적 기법	32
2)	재료에 의한 분류	32
(1)	브러시를 활용한 회화적 기법	32
(2)	에어브러시 기법	33
(3)	오브제 기법	33
3)	표현방식에 의한 분류	34
(1)	일반양식	34
(2)	트롱프뢰유 기법	34
(3)	일루미네이션기법	35
(4)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기법	35
(5)	3D컴퓨터 기법	36

제 3 장 감성적 측면에서의 아트메이크업 사례분석 43

제 1 절	감성적 측면에서의 아트메이크업 사례분석	43
1.	색상	43
2.	형태	44
3.	질감	45

4. 패턴	45
제 4 장 작품제작	51
제 1 절 감성적 측면에서의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51
1. Escapism	53
2. 飛上	55
3. S·S (Shining Spirit)	57
4. 꿈을 꾸다..	59
5. 모방	61
6. 정원	63
7. 백조의 눈물	65
제 5 장 결 론	69
【참고문헌】	71
【부 록】	75
인터뷰	75
ABSTRACT	83

【 표 목 차 】

[표 1] 감정과 감성의 비교	10
[표 2] 시각정보 요소별 대표 이미지	20
[표 3] 아트메이크업 유형	24



【 그림 목 차 】

<그림 1> 감각과 감정	8
<그림 2> 인간의 공간 인지 과정	15
<그림 3> 감성공간 생성	16
<그림 4> 보호성	23
<그림 5> 상징성	23
<그림 6> 페이스페인팅	29
<그림 7> 페이스페인팅	29
<그림 8> 판타지메이크업	29
<그림 9> 판타지메이크업	29
<그림 10> 바디페인팅	30
<그림 11> 바디페인팅	30
<그림 12> 구상적 기법	37
<그림 13> 구상적 기법	37
<그림 14> 추상적 기법	37
<그림 15> 추상적 기법	37
<그림 16> 그래픽적 기법	38
<그림 17> 그래픽적 기법	38
<그림 18> 브러시 기법	38
<그림 19> 브러시 기법	38
<그림 20> 에어브러시 기법	39
<그림 21> 에어브러시 기법	39
<그림 22> 오브제 기법	39
<그림 23> 오브제 기법	39
<그림 24> 일반 양식	40
<그림 25> 일반 양식	40
<그림 26> 트롱프뢰유 기법	40
<그림 27> 트롱프뢰유 기법	40

<그림 28> 트롱프뢰유 기법	41
<그림 29> 트롱프뢰유 기법	41
<그림 30> 일루미네이션 기법	41
<그림 31> 일루미네이션 기법	41
<그림 32> UV 기법	42
<그림 33> UV 기법	42
<그림 34> 3D 컴퓨터 기법	42
<그림 35> 3D 컴퓨터 기법	42
<그림 36> 색상을 응용한 작품	47
<그림 37> 색상을 응용한 작품	47
<그림 38> 색상을 응용한 작품	47
<그림 39> 색상을 응용한 작품	47
<그림 40> 형태를 응용한 작품	48
<그림 41> 형태를 응용한 작품	48
<그림 42> 질감을 응용한 작품	48
<그림 43> 질감을 응용한 작품	48
<그림 44> 질감을 응용한 작품	49
<그림 45> 질감을 응용한 작품	49
<그림 46> 패턴을 응용한 작품	49
<그림 47> 패턴을 응용한 작품	50
<그림 48> 패턴을 응용한 작품	50

【 작 품 목 차 】

[작품 1] Escapism	54
[작품 2] 비상	56
[작품 3] S·S (Shining Spirit)	58
[작품 4] 꿈을 꾸다..	60
[작품 5] 모방	62
[작품 6] 정원	64
[작품 7] 백조의 눈물	6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류는 탄생부터 원초적으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미적 본능과 욕구를 갖게 되었다. 그 미적 본능의 표현 중 하나가 신체에 행해지는 메이크업으로 보호적 의미나 상징적, 종교적인 의미로만 표현되는 수단이였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메이크업은 신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의 형태로 발전하였고, 급성장하는 문화산업으로 패션, 광고, 이벤트, 공연예술 등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지면서 종합예술의 한 장르로 각광받고 있다.

현대 사회의 인간들은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게 되고 총체적인 미의 기준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감성 가치관에 따라 미적가치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아트메이크업은 미의 아름다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잠재의식과 감성을 자극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트메이크업은 각 미술양식에 나타났던 조형예술의 한 부분에서 탈피해 독립적인 예술분야로 자각되고 있으며, 시각에 의한 표현과 색채를 중심으로 개성적인 자아를 표현하는 미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다양화된 시대의 자율성을 표현하고 많은 소재들을 재조명하는 창조적인 실험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아트메이크업은 시각에 의한 표현이 중심이 되는 예술로 대중설득과 미적 감동의 유발이라는 이중적 목적을 지니며, 내용과 표현에 있어 제한없는 장르로 획일화된 미의 개념이 아닌 개성화된 거대한 문화로서 형성되고 발전하고 있다. 즉, 예술과 감성, 문화를 함께 추구함으로써 아트메이크업의 시각예술을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시각에 의한 표현과 조형요소가 결합된 다각적인 성격으로 인간의 내면가치를 표현하는 중요한 문화가 된 것이다.

감성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오감을 통해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으로 감성 아닌 것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포괄

적인 의미로 아트메이크업에서 느끼는 인간의 감성과 취향에 부합되는 이미지의 의미는 시각정보와 감성공간을 생성한다.

아트메이크업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다양성과 창조적인 분야로서 단순히 시각매체로만 국한하여 파악하기에는 한계점이 내포되어 있다. 결국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조화를 이루며 예술적 감성과 다양화, 전문화라는 복합적인 의미파악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트메이크업은 추상적 세계와 인간의 감성과 감각을 시각화하는 매체이며 예술분야의 구체적인 한 장르를 형성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21세기 트렌드인 감성과 감성에서 생성되는 시각적 측면에서 아트메이크업을 해석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대사회의 감성의 집약적인 지식에서 생성되는 감성시각의 관점에서 이론을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트메이크업을 재조명하여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곧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시지각을 통해 감성, 감각적으로 느끼는 예술분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종합예술의 한 분야로써 작가와 대중들의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목적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는 아트메이크업의 시각표현의 확대를 입증하고 감성예술 도입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인 감성시각의 실증적 입증에 도모하기 위해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종사자와 관련학과 석사 이상자 10인을 대상으로 시각을 통해 인지되는 색상, 형태, 질감, 패턴의 이미지로 생성되는 감성에 관한 1차 인터뷰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7점의 아트메이크업을 제작하고자 한다. 또한 작품을 통한 2차 인터뷰로 아트메이크업과 감성간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감성의 개념과 감성의 유형, 특성을 살펴보고,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감성공간에서 지각되는 시각예술을 요소별을 분류하여 시각적 관점에서 감성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아트메이크업의 개념 및 역사, 특성과 표현기법들을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3장에서는 아트메이크업의 시각자료를 통해 감성시각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1차 인터뷰를 실시한 후,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감성공간의 시각요소인 색상, 형태, 질감, 패턴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여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7점 제시하였다. 제작된 작품을 통해 2차 인터뷰를 실시하여 아트메이크업과 감성간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5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을 통해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시각자료로는 문헌과 인터넷을 참고하고, 주최 기관의 소장 자료 또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작품을 첨부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감성의 이론적 고찰

1. 감성의 개념 및 정의

21세기는 감성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스컴이나 상업광고에 ‘감성’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사용되며 그만큼 감성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감성적 측면까지 포함하여 대두되어 가고 있다.

감성이란 일반적으로 ‘이성(理性)’ 또는 ‘오성(悟性)’과 함께 인간의 인식능력을 말한다.¹⁾ 즉,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오감을 통해 감각하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감성은 사람의 인지활동에 의해 훨씬 복합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감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최영재(2008)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지각을 통한 감성공간 연구」에서 감성은 외부로부터의 감각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직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물리적 자극에 의한 감각, 지각으로부터 인간의 내부에 야기되는 복합적인 심리적 체험까지 인간의 감각수용기를 자극하면 보다 복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은하(2009) 「디지털 미디어를 적용한 감성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작용으로 정서적 반응, 생리적 변화에서 표현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분이나 감정이며, 나아가 사고의 한 동적 양상의 직관적인 능력을 감성이라 서술하였다. 백선경(2008) 「감성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시각정보 요소별 감성공간 생성」은 모든 인간 생활에서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며 사물을 보고 느끼는 아름답게 생각하는 감각, 감정, 인간의 문제 해결이나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정보를 추출하고 판단 후 개념 관계를 생성하는 정신의 통합된

1) 정현원(2008), 「감성의 개념 및 어휘 체계 정립을 통한 공감각 디자인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5.

기능이라 하였다. 이렇듯 감성의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광범위하지만 감성의 의미를 축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은 수동적인 감수성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성과는 다른 영역에 속하고 인간의 원초적인 느낌 혹은 부차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둘째, 감각과 감성은 인식능력 중 하나로 인간의 오감에서 느끼는 힘 무언가의 존재를 의미하며 감성 자체가 생명의 본질이며 ‘나’ 그 자체인 것이다. 감각과 감정의 인식과 느낌은 감성을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자기 자신의 통일적, 조화적인 작용으로 인간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감성은 자극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중 축적된 기억, 경험 및 개인의 성향, 환경, 문화에 따라 변화하며 인식한다. 인간의 감성은 감각계와 정보처리계의 중간 상태로 감각 정보의 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감성은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작용으로 생리적 변화에서 표현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분, 상태, 감정 모두를 포괄한다.

다섯째, 감성은 감각을 매개로하여 인간의 교감이 이루어 질 때 받아들이는 느낌이며, 이는 감성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감성은 많은 의미를 부합하며 이성과 서로 상호작용함에 있어 삶의 생명력을 부여하고 개인의 삶과 감성을 성장시킨다.

감성이란 용어는 감정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때로는 다른 의미의 감성, 감정, 감각 등의 용어로 다르게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다. 정현원(2008) 「감성의 개념 및 어휘 체계 정립을 통한 공감각 디자인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정은하(2009) 「디지털 미디어를 적용한 감성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감성의 관한 용어의 정의와 개념간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1) 감각

감각은 고유의 감각기관에서의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을 말하며, 감각은 감정에 가까우며 지각의 전 단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생리적, 경험적, 심리적인 과정이며 자립적인 의미를 가진

다.

감각은 감각 수용기와 신경전달 경로의 복잡성에 따라 크게 일반 감각과 특수감각으로 분류된다. 일반 감각은 촉각, 입각, 온각, 냉각, 통각 등의 피부감각을 뜻하며, 특수 감각은 시각, 후각, 청각, 미각, 평형감각을 말한다. 인간은 오감 즉, 다섯 가지 감각을 중심으로 감각 신경에 전달되며, 뇌로 전달된 감각들은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감각인식 능력의 감성은 인간의 오감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인간의 정서와 감정에 따라 외적 감각이나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영역을 축소시켜 내부감각의 자극을 통해서도 개인의 경험으로서 부여되는 감성을 일으킬 수 있다.

감각의 인지 작용이 배제된 직접적인 자극에 대한 지각이라면 감성은 여러 감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합 감각 또는 공통 감각이라 할 수 있다. 곧, 특수 감각과 체성 감각, 내부 감각이 복합적인 작용과 아울러 인지적인 요소까지 같이 작용하여 감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감각작용은 신체를 이용하여 물리적 접촉에 의해 오관을 통하여 인지되지만 작용과정에서 정신적 차원까지 영향을 미친다. 감각은 어느 특정한 자극에 대응하는 감각을 일깨우는데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과 복합되어 있는 신체, 심리, 정신 작용을 통한 다감각까지 일깨우는 현상으로 공감각을 바탕으로 종합감각체험이라 할 수 있다.

2) 감정

감정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한다.²⁾ 즉, ‘느끼어 일어나는 심정, 마음, 기분, 어떠한 대상이나 상태에 따라 일어나는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쾌감, 불쾌감 따위의 마음현상’이다. 감정의 발생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리적·신체적 원인에 의해 수반된다. 몸을 의지할 곳이 갑자기 사라지면 공포심이 발생되고, 몸을 짓눌릴 때 노여움이 일며, 몸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면 쾌감이 생기고, 몸을 아프게 하면 고통의 감정이 발생하

2)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4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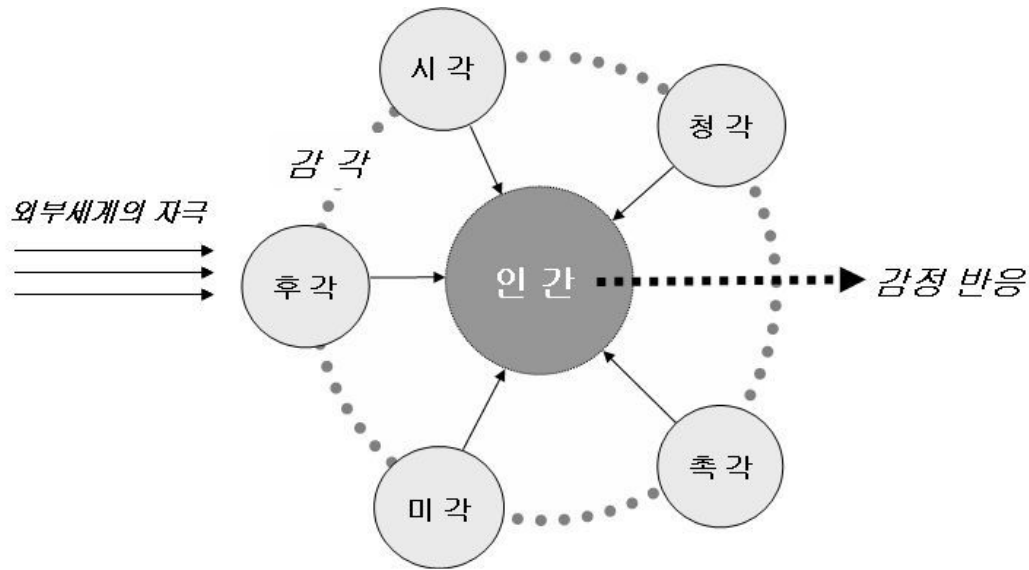
는 이 모든 감정은 신체에 의해서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이다.

둘째, 심리적 원인에 관계로 발생한다. 즉, 어떠한 성취감에 도달하면 성공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감이 생긴다. 이는 쾌·불쾌, 행복감과 불행감, 노여움, 초조함 등의 주된 감정이다.

셋째, 사회적 원인에 의해 타인과의 관계와 얽히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이 발생한다. 승리와 패배의 감정, 당해 낼 수 없는 상대를 대할 때의 열등감과 이와 반대 경우의 우월감이 존재한다.

넷째, 가장 고상한 가치감정인 정조(情操)는 문화적 원인으로 생긴다. 도덕적 정조로는 정의감, 결벽감이 있으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분노도 있다. 과학적 정조로서는 진리에 대한 놀람과 신비감이 있으며, 정당할 때에는 기분이 좋지만 허위에 대해서는 불쾌감이 생긴다. 종교적 정조로는 신성한 느낌, 외경의 감정, 의거(依據)와 안심감, 불교적인 무상감(無常感), 감사의 감정, 신비감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문화의 형(型)에 의한 것이지 보편타당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감정은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인간의 마음에서 발생한 결과라기보다는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감정의 동기유발은 상황이나 신체변화, 행동에 의해 경험하며 자동적, 자발적, 무의식적인 인지 과정으로 <그림 1>은 외부의 자극을 통해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 오감을 통해 반응하여 나타나는 감정과 감각 반응에 대한 과정이다.



<그림 1> 감각과 감정

정현원(2008), 「감성의 개념 및 어휘 체계 정립을 통한 공감각 디자인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p.12.

3) 감성

감성의 사전적 정의는 ‘느낌을 받아들이는 성질, 감수성,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 또는 감각되고 지각되어 인간이 인식하는 능력’이다.³⁾ 감성은 감각기관을 통한 복잡한 감정을 정의하며, 의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감성은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작용으로 정서적 반응, 생리적 변화에서 표현으로 이어진 기분이나 감정이며 사고의 동적 양상이며 감각을 매개로하여 인간과 어떤 대상이 교감을 이룰 때 인간이 받아들이는 느낌이다. 감성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며, 감성의 본질이 애매하여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분할 수 없고 포괄적이어서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 될 수 있다.

4) 감성과 감정

감성은 신체 감각기관을 통한 주변 상황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복합

3)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적이고 종합적이기 때문에 명확히 체계화하기 어렵다. 신체 기관의 감지를 의미하고 인간이 수용하고 전달 받은 것을 감각 신경을 통하여 두뇌에 전달되며 이 경험이 감각과 지각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것을 감정이라 정의하고, 다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을 발생시키는 것을 감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감정과 감성은 단어 의미상 다른 개념을 갖고 있지만 서로 상호작용됨을 알 수 있다. 감정은 강도가 높으며 생리적, 신체적 반응을 동반하여 객관적인 측정이나 평가가 가능하지만, 감성은 강도가 낮으며 반사적으로 갖게 되는 감정으로 판단과정을 거치기에 노력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다. 감정은 감각자극에 대해 정보처리와 판단과정을 거쳐 발생되지만 감성은 감각자극을 받는 즉시 직관적으로 나타난다. 즉, 감정은 감성의 시발점으로 자각하며, 감정은 감성의 현상이 아닌 감성의 인식능력의 하나이다. 감정은 감성이 자신의 것으로서 통어하고 지배하지 않으면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며 감성은 이성을 수단으로 하여 감정이나 욕구가 문제없이 실현된다.

결국, 감성이 외부의 물리적 자극 및 정보 자극에 대하여 개인의 생활경험 및 환경을 통하여 주관적이고 순간적으로 갖게 되는 느낌이라면 감정은 감각자극에 대하여 두뇌에서 정보처리와 판단과정을 거쳐 결정되므로 어느 정도 자기 조절이 가능한 현상이다. [표 1]은 이구형(1998) 「감성과 감정의 이해를 통한 감성의 체계적 측정 평가」의 연구에 의해 감정과 감성을 분리된 서로 다른 개념이 측정된 결과의 값이다. 감정은 강도가 높으며 생리적, 신체적 반응을 동반하는데 비하여 감성은 강도가 낮으며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감정은 감각자극에 대하여 두뇌에서 정보처리와 판단과정을 거쳐 발생되지만 감성은 감각자극을 받는 즉시 직관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감정은 노력에 의하여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나 감성은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인위적 조절이 불가능하며 감성이 감정이나 논리적 의사결정보다 앞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감정의 개념을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보이는 기본감정으로 국한한 협의의 개념에서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표 1] 감정과 감성의 비교

	감정(Emotion)	감성(Sensibility)
심리변화의 강도	높음	낮음
생리적 변화	있음	관찰안됨
표정 및 행동변화	있음	없음
객관적 측정, 평가	가능	불가능
일상생활 중 발생빈도	낮음	높음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	늦음	빠름
자의적 조절	가능	불가능
기타	두뇌에서 판단과정을 거쳐 발생	반사적, 직관적, 무의식적 발생, 개인성, 변화성, 모호성

이구형(1998), 「감성과 감정의 이해를 통한 감성의 체계적 측정 평가」, 『한국감성과학회지』 Vol.19 No.1, p.19, 한국감성과학회

2. 감성의 특징

감성은 인간의 존재적 가치를 개인의 감성이나 감각을 중요시하는 감성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인간 전체를 보게 됨으로써 풍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성은 자기 자신을 통일적, 조화적, 합리적인 작용으로 그 자각에 입각하지 않으면 감성적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분열되어 버리기 때문에 감성이 통일과 조화와 합리의 핵이 되어 그 자각에 있어 육체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감성은 감성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이라 할 수 있다.

감성은 매우 다원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총체적인 인식과 함께 공통적인 특징을 체계적으로 인식 할 수 있으며, 정은하(2009) 「디지털 미디어를 적용한 감성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환경적 요인, 시간적 요인, 주관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환경적 요인’은 경제, 사회, 문화로 형성되는 환경에서 가지는 감성이라 할 수 있으며, ‘시간적 요인’은 인간에게 무언의 감성이 생성되었을 때 처음 가지는 감정이 지속되었거나, 혹은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경우의 특별한 성별을 초월한 시간적 요인에 의한 감성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주관적 요인’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감성으로 대인의 의존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인간의 감성은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과 문화, 시간에 따라 기억되고 경험되어 내재됨을 알 수 있다. 감성은 주관적 가치관에 의해 각기 다르게 느끼고 인간의 감성이 애매성을 가지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에는 쉽지 않은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요인에 의한 복합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을 뜻하기에 감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감성공학 분야에서는 감성을 단순한 감각과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정보의 객관성과 주관성으로 나누어 단일성과 복합성으로 구분한다. 이같이 인간의 감성은 개인과 사회, 문화적 요소의 연관성의 복합적인 감정인 것이다.

3. 감성의 유형

1) 감성 공학

감성공학에서 감성은 환경의 변화나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자극에 대한 인간 내부의 고차원적인 심리적인 체험으로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인체의 감각기관에 의해 감지되는 환경에 대한 감각 정보자극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개별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광범위한 개념이며 불확실성 애매모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학의 목적은 ‘인간 생활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비약적이며, 이에 따라 기술적 발전도 현저하다.

인간의 감성은 매우 복잡하지만 자연과학을 기본으로 하는 공학체계에 서 정량성이 결여되어 있는 인간체계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 인간의 감각 및 감정의 강도를 새로운 기법과 실험으로 측정하여 정량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감성의 영역을 공학으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감성공학이다.

감성공학의 핵심은 인간의 쾌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인간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이 감각 기능들을 측정하고 인간이 어떤 조건하에서 ‘고급스러움’, ‘참신함’ 등을 느끼게 되는가 하는 것 등을 측정하는 기술이 된다.⁴⁾

2) 감성디자인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경제적 부의 축적으로 풍요의 시대를 맞고 있다. 디자인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기본적인 성능만이 아닌 정신적인 만족감, 개인적인 호감이 제품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디자인의 여러 측면의 느낌들이 디자인 선택에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감성디자인이란 인간이 가진 감각을 보다 세밀하게 자극하여 활성화 시켜 새로운 감성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감성디자인이다. ‘감성공학’에 의

4) 이순요, 양선보(1996), 『감성공학』, 서울 : 청문각, p.12.

해 구축된 정보들을 적용하여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적 가치관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감성디자인으로 접근하여 발전해 가고 있다.

감성디자인은 이성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감성은 인간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형태적,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지극히 주관적이고 애매한 감정의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성디자인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자극과 반응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객관적인 측면에 부합되지 않으며 주관적이고 애매한 감정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디자인의 여러 측면의 느낌들이 부합된 것이 현 시대의 감성디자인의 개념으로 다양화하고 고도화되었다.

감성디자인은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복합적인 감정으로 작용하여 환경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상호반응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성과의 단절이 아닌 인간의 감정을 구성적 원리를 통해 공간 조형의 원리로 치환하는 작업으로 통합하여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듯 감성디자인은 인간과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을 위한 오감 자극, 심리적, 신체적으로 만족을 주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3) 감성 경험

감성 경험은 인간과 환경이 분리적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형태를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다. 인간의 감각, 지각, 인지 관정의 단계를 거쳐 인간이 공간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감각문제를 시작으로 하는데 그것의 척도는 인간의 신체이다. 즉, 공간의 신체 지각은 감성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감각과 지각을 통하여 공간의 상호작용함으로써 경험과 기억의 복합적 작용과 함께 감성을 유발하게 된다. 이 속에 체험을 통해 감성을 경험 할 수 있다.

인지적 체험은 인지 과학에서 환경을 지각하고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환경지각과 환경인지는 기초적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지

각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환경이 인지하는 과정으로 환경의 주요한 감각 정보들을 수용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작용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미적 경험을 확대하게 된다. 환경에 대한 신체 지각과정의 단계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과 같은 인체 감각 기관에 의해 감지되며, 지각하는 주체자인 인간 개인의 경험이 사고 작용에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 작용은 직접적인 지각 작용을 일으켜 인간의 감성을 활성화하게 만든다.

감성은 인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각과 인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형성된 감성은 개인의 경험으로 저장되며 인간의 사고과정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감정이 감각자극을 인식하고 논리적인 정보처리와 예측의 판단과정을 거쳤을 때, 감성은 감각자극의 지각과 동시에 직관적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과정은 생활 경험에 축적되고 발생되어진다.

이와 같이 인간의 감성 경험과정이 단순히 감각과 지각의 단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직적인 피드백 관계를 이루는 동시에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하는 통합적인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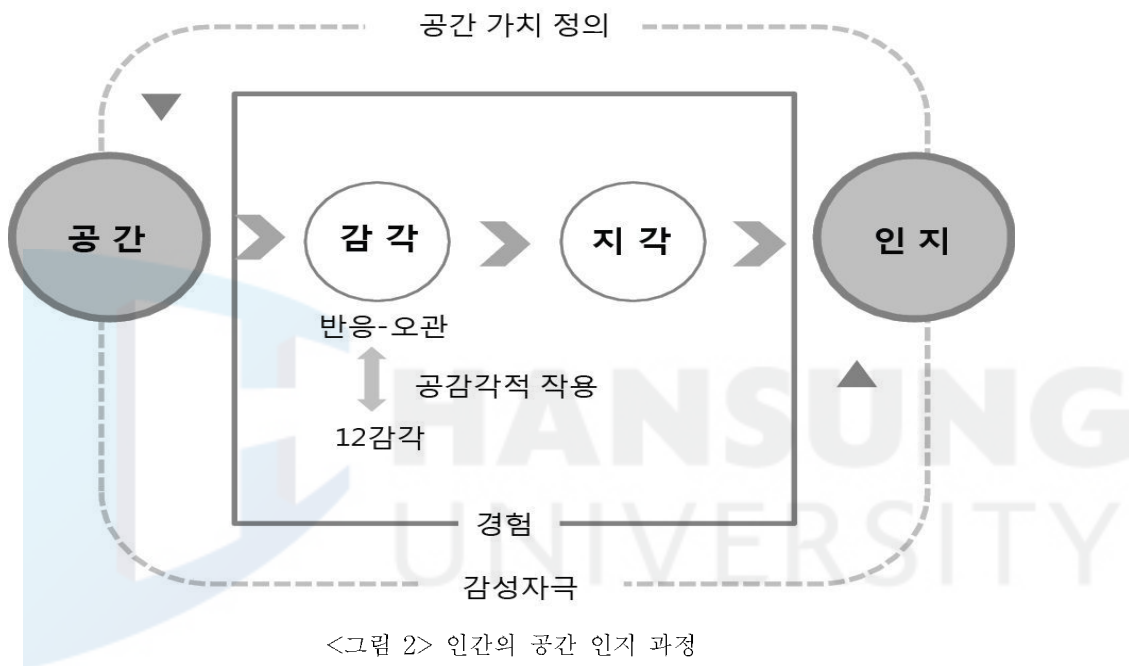
4. 감성의 요인

감성은 시각적, 공간적 요인을 통해 분류된다. 시각적 인지 요인은 시각 정보와 감성은 인과응보 관계이다. 인간은 사물이나 대상을 눈으로 인식하며, 눈으로 들어온 시각정보는 생성된 감성을 만들고 그 감성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을 표현한다.

시각정보란 사람의 시각을 거쳐 변화되는 정보로 인간의 시각은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감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빛의 세기, 정보, 빛의 파장, 부호에 따라 얻게 되는 색도, 도형, 크기, 형태, 배치 등 공간 정보 등은 시각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구성하고 이 이미지들이 인간의 시각적 감각을 자극하여 감성을 형성한다.

공간적 인지 요인은 개인의 경험이나 취향과 같은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주관적인 감정이다. 따라서 공간에서의 감성을 인간의 몸으로 세계와 접촉하게 되며 살아가는 현실과 생활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인식의 이미지와 사건에 의해 나타나는 감정이다.

<그림 2>는 공간에서 느끼는 인간의 감성은 감각을 매개로하여 인간이 어떤 대상과 교감을 이룰 때 인간이 받아들이는 느낌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교감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의 접촉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감정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 2> 인간의 공간 인지 과정
정은하(2009), 「디지털 미디어를 적용한 감성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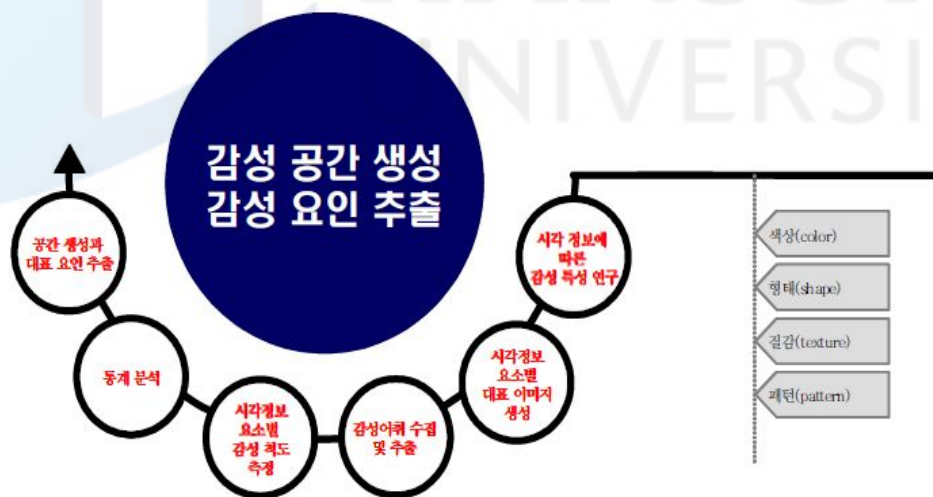
5. 감성공간의 시각예술

감성공간을 생성하기 위한 시각정보는 인간이 사물을 인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각기로 입력되어지는 모든 자극들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감성에 영향을

미친다. 백선경(2008), 「감성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시각정보 요소별 감성공간 생성」을 바탕으로 감성공간의 생성절차와 감성공간에서 시각정보 요소를 색상, 형태, 질감, 패턴으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1) 감성공간

감성공간의 생성은 <그림 3>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먼저, 이미지 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 중 공간에 포함되는 대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시각정보 요소별 감성적 특성을 연구한다. 이는 시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값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각정보 요소별 대표 이미지와 감성을 표현하는 어휘 수집 단계를 거친 후, 시각정보 요소별 대표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것은 인간의 감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가 애매하고 주관적이지만, 시각정보 요소들은 물리적 속성으로 감성을 표현하는 어휘와 관계 정의를 통해 정량화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셋째, 시각정보와 감성간의 관계 정의를 위해 생성된 대표 이미지와 감성 어휘를 이용하여 인간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대표 이미지를 보여주고 측정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감성공간을 생성하고 각 시각정보 요소별의 대표 감성요인을 추출하여 인지되는 정보에 따른 감성간의 관계까지 정의할 수 있다.



<그림 3> 감성공간 생성

백선경(2008), 「감성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시각정보 요소별 감성공간 생성」, p.20.

2) 시각정보 요소

시각정보 요소의 대표 이미지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구성하는 대표 이미지 정보들은 물리적 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시각정보 요소별 대표 이미지는 색상, 형태, 질감,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1) 색상

색상은 인간에게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로 미학에서는 감성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색상과 인간, 또는 인간과 인간의 지적, 생리적, 감성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시각정보 요소 중 색상을 [표 2]에서 살펴보면, 인간이 색을 보고 느끼는 보편적인 감성을 예를 들었다. 빨강색은 강렬함과 의지, 사랑 등 색의 의미가 인간의 감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옷의 컬러를 선택함에 앞서 시간, 공간, 장소에 따라 옷의 컨셉을 설정한다. 노란 색상, 분홍 색상은 따뜻한 느낌, 짙은 원색의 파랑, 검정은 차가운 느낌, 갈색톤은 온화해보이는 느낌 등 옷의 색상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나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물건의 형태, 옷의 차림새보다는 인간이 어떤 대상과 교감을 할 때 색상으로 인지되는 이미지 연상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교감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의 접촉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색상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추상적인 인간의 심상을 구체적인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역으로 구체적인 색상을 추상적인 심상으로 전환하여 해석할 수 있다.

(2) 형태

형태란 정확한 사전적 의미로 사물의 생김새, 형상과 태도, 형체와 생긴 모양⁵⁾을 일컫는다. 시각정보 요소 중 형태는 영문으로 Shape으로 표현되는데 정확한 의미로 Shape은 형을 말한다. 형이란 선에 의하여 둘러싸여

5)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진 평면 영역을 뜻하여 그 평면 영역이 가지고 윤곽선, 즉 외형적인 모양을 말한다. 이것은 선과 각에 의해 만들어지고 내부 공간 영역이 형에 따라 느낌이 표현된다. 형태는 점과 선에서 얻어지는 마지막 형이며 모양은 형태의 주요한 자체적 특질이고 표면과 모서리의 조합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형태의 개념적 구조는 크게 기본 형태, 기하학적 형태, 자연적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기하학적 형태는 인간의 이념적 사고 체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며, 이러한 개념의 기하학적 형태는 복잡한 자연으로부터 간결한 형태로 이루어 낸 인위적인 추상의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연적 형태는 정확한 형의 구분이 불확실하므로 자연적 형태를 제외한 모든 형태는 기하학적 형태를 중심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선의 굵기나 방향에 의해 다른 감성적 특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척도법에 의해 곡선적 형태는 Soft, 직선적 형태를 Hard, 그리고 단순한 형태를 Cool, 복잡한 형태는 Warm으로 분류한다. 다시 말해서 보통 곡선에서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느끼지만 직선에서는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비례, 크기, 움직임에 의해서 ‘역동적인’, ‘안정된’, ‘불안한’ 등의 다른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질감

질감은 오감 중 촉각적인 동시에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대부분 재질이나 표면 구조 등에 따라 생기는 속성이며, 시각정보 요소로써 질감은 물체나 이미지 표면의 속성을 표현한다. 즉, 부드러움, 말랑말랑, 두꺼움 등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의 모든 감각을 시각적으로도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두께, 무게, 온도, 조직, 결, 광택, 금속성, 투명도 등의 특정 재료적 특성 또한 감성에 영향을 준다.

이미지 내의 질감 요소는 대상이 어떤 재료를 갖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시각적 감성이 좌우된다. [표 2]에서 금속의 표면을 보았을 때 인간은 질감이 주는 감정보다 색상이 주는 감성을 먼저 느낀다. 하지만 그 이미지가 금속임을 알고 인지하는 사람은 ‘매트하고 차갑다.’는 질감에서 느끼는 감

성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미지가 표현하는 질감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질감에 대한 감성을 정확히 인지, 표현 할 수 있다.

(4) 패턴

패턴은 형, 견본, 모형, 모양, 도안, 무늬 등으로 디자인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정돈된 배열을 뜻하고 형태에서 오는 감성이 부분 집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은 같은 형태의 반복 또는 일정한 반복에 대한 반복으로 정렬되어진 단위나 형태들이 모여 또 다른 형태로 인지되었을 때 감성의 차이 알 수 있다. 문양은 개념상 모티브와 패턴으로 분류, 모티브는 문양을 이루는 형태의 기본 단위, 패턴은 모티브가 모여서 이루는 문양의 전반적인 조형 단위로 정의한다.

이렇듯 패턴의 종류는 무수히 많고 각각의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패턴들의 생성으로 기준이 모호하여 패턴의 대표 이미지를 생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조형방법을 기준으로 삼고 자유구성과 기하구성으로 나누어 패턴을 구성하는 단위가 회화적으로 표현되면 자유구성, 그리고 기하학 도형을 이용하면 기하구성으로 포함시킨다. 그렇게 분류된 패턴들 중 패턴에 관한 문헌이나 연구논문 그리고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패턴들을 선별하여 대표 패턴 이미지를 생성한다.

[표 2]는 백선경(2008) 「감성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시각정보 요소별 감성공간 생성」을 참고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색상, 질감, 형태, 패턴의 일반적 성격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트메이크업 제작에 적용되는 디자인 요소 중심으로 분석하여 나열하였다.

[표 2] 시각정보 요소별 대표 이미지

색										
	빨강	핑크	보라	갈색	검정	노랑	남색	흰색	초록	파랑
	강렬함 의지	따뜻함 화사함	정렬 우아함	편안함 무거움	힘 무거움	명량 낙천	동경 차분함	순수 가벼움	신뢰 평안함	차가움 평화
형 태										
	Circle	Triangle	Regular Quadrangle	Sector	Parallelogram	Rhombus				
	부드러움	날카로움	목직함	날쌔	평이로움	대칭				
질 감										
	Metal	Wood	Fabric	Stone	Glass					
	글로시 차가움	거침 포근함	울퉁불퉁	거침	맑음 깨끗함					
패 턴										
	Flower	Madras Check	Aryl Check	Diagonal Line	Art Nouveau					
	비례 깨끗함	반비례 역동적	정돈됨	세련됨 차가움	기하학 복잡함					

백선경(2008), 「감성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시각정보 요소별 감성공간 생성」, p.27.

제 2 절 아트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1. 아트메이크업 개념

인간은 누구나 원초적으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미적 본능이 있으며, 그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 중 하나가 메이크업이다. 메이크업은 집단이나 개인을 위협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표현 수단이었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많은 시간을 거쳐 당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발전해왔다.

아트메이크업 개념을 다룬 선행연구로는 김명지, 최경희(2009) 「아르누보 문양의 조형적 특성을 이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에서는 Art Make-up 이란, ‘Art’와 ‘Make-up’의 합성어로 미적 용도로 사용되는 메이크업에 예술성을 부여한 예술행위로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사용하여 인체의 독특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라고 하였으며, 김영숙(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표현에 관한 연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인간의 육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현하는 메이크업의 영역이라 하였다. 이미정(2010) 「주술적 이미지를 활용한 아트메이크업」은 외향적인 미적효과 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일체감과 동일감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며 추상적인 이미지를 다양한 색채를 이용하여 시각적 이미지와 미적 아름다움의 효과를 동시에 표현된다고 정의하였다. 박정임(2005) 「바디아트의 질감 표현에 관한 연구」에서는 미적용도의 뷰티메이크업과 예술성이 부여된 아트와의 결합으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표현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아트메이크업은 인체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이 접목되어 환상적인 면과 동시에 예술적인 면이 어우러진 시각예술의 창조적 행위로 화려함과 동적표현이 연출되는 종합예술이라 정의 할 수 있다.

2. 아트메이크업 역사

메이크업의 기원에 대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원시인류가 옷의 형태가 갖춰지기도 전에 몸에 꽃문양, 동물문양 등을 몸에 그리거나 문신의 형태로 피부에 새겼던 것이 메이크업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보호본능, 미적인 표현, 사회적 지위 표현, 주술적인 의미 등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목적에 의해 사용되어왔다. 피부의 외관에 색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특유의 사회적 욕구라고 간주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인간은 피부에 색을 칠하기도 하고 문신을 넣기도 하고 형태를 바꾸기도 하였다.

인류가 자신의 적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몸에 상흔과 문신을 하였고, <그림 4>와 같이 사냥을 나가기 전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본능으로 얼굴에 색칠함으로써 자신의 위엄을 들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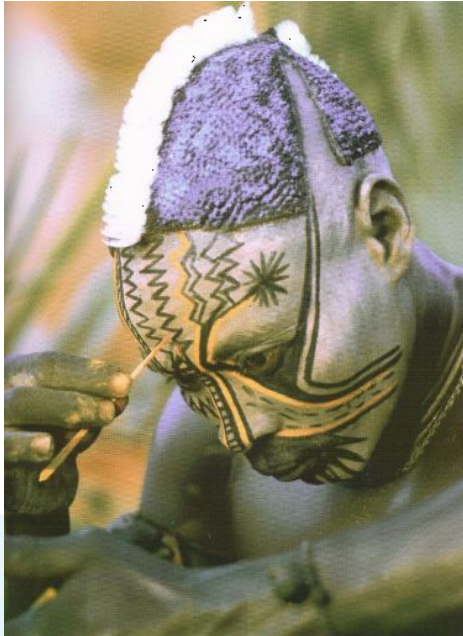
<그림 5>는 아프리카에서 절대자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얼굴이나 신체의 일부를 붉은 색이나, 백납, 식물성 색소에서 채취한 여러 가지 색채로 채색하는 행위 및 민족 간의 행하여지는 특이한 헤어스타일, 귀걸이, 코걸이, 팔찌 등은 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계급이나 신분, 부족을 나타내기 위한 형태이다.⁶⁾ 또 다른 예로써 1800년대의 여성들이 몸에 백납분을 바른 것은 촛불의 그을음으로부터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⁷⁾ 시대마다 미적기준은 달랐지만 상대방의 관심이나 시선을 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문신이나 장신구를 사용하여 얼굴이나 몸을 치장하였다. 인류 문명이 진보했다고 생각하지만 겉모습을 변하게 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은 심리학적으로 원시적인 사람들의 충동과 유사하다.

한 시대의 문화와 역사는 현존하는 것이지만 과거로부터 유래된 것처럼 아트메이크업의 역사 또한 원시 인류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형태로 변화

6) 김양은(2004), 「선(線)을 강조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7) 이미자(2009), 『응용 아트메이크업』, 서울 : 경춘사, p.9.

되었고, 이러한 메이크업은 예술과 인간이 조화된 독창적 예술로써 고정된 틀을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수단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다.



<그림 4> 보호성

<http://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nhn?code=68594&imageNid=3291610>



<그림 5> 상징성

<http://blog.daum.net/yunsamuel/14782154>

3. 아트메이크업 유형

인간은 원초적으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미적 본능이 있는데 그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 중의 하나가 메이크업이다. 메이크업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인간의 신체를 바탕으로 행하는 표현기법으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대한 표현예술로서 예술의 한 장르로 각광받고 있다.

현대의 아트메이크업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정립이 미비하여 아트메이크업의 유형분류를 다룬 선행연구를 토대로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표 3]을 바탕으로 페이스페인팅, 판타지메이크업,

바디페인팅으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표 3] 아트메이크업 유형

남은선(2009)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연구」	페이스페인팅	페이스페인팅은 얼굴에 페인팅하는 것으로 월드 컵을 기점으로 이벤트, 행사에 많이 활용되어지는 기법이다.
	판타지메이크업	판타지메이크업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강하면서도 화려하게 이미지를 표현하여 작품을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기법이다.
	바디페인팅	바디페인팅은 신체에 문신이나 피어싱을 관행하는 것으로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어떤 일정한 재료와 기교 등을 사용하여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이나 산물이다.
강현신(2011)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페이스페인팅	페이스페인팅은 일부 개인이나 특정집단이 상황에 따라 색이나 문양으로 얼굴에 장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타지메이크업	전위적이고 실험성이 강한 예술의 형태이다.
	바디페인팅	바디페인팅은 인체를 이용한 시각예술로서 바디아트의 예술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예술이다.
김영숙(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의 표현에	페이스페인팅	물감을 이용하여 포인트 주듯 작은 부위에 그리거나 얼굴 전체에 그리는 형태이다.

관한 연구」	판타지메이크업	판타지메이크업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강하면서도 화려하고 과장되게 이미지를 표현하여 작품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기법이다.
	바디페인팅	순수예술의 의상으로 바디페인팅은 미술의 개념과 의상의 기능성을 접목시킨 새로운 표현양식이다.
김민정(2010) 「바디아트 마티에르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페이스페인팅	페이스페인팅은 얼굴에 물감을 칠하거나 뿌리는 행위이다.
	판타지메이크업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제를 재료나 표현방법에 있어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고 환상적이면서 독창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다.
	바디페인팅	바디페인팅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몸의 일부 혹은 전체에 아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 신체의 구조이해, 디자인 감각, 색채 등 디자인의 기초지식을 알아야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 3]과 같이 아트메이크업 유형은 페이스페인팅, 판타지페인팅, 바디페인팅으로 분류되어 이에 따른 정의는 다양하고 광범위하지만 본 연구자는 아트메이크업 유형을 다음과 같이 축약하였다.

1)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페이스페인팅은 말 그대로 해석하며 물감을 사용하여 얼굴부분을 페인팅하는 것으로 얼굴 전체를 페인팅하기도 하고 일정한 부위만을 페인팅하기도 한다. 페이스페인팅의 기원은 원시미술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정확히 언제부터 자신의 몸에 색을 이용하여 페인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의 페이스페인팅은 신분과 계급을 표시하거나 장식, 유해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벽화나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바디페인팅과 맥락이 같으며 인간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바디아트의 개념과 동일하다.

<그림 6>은 액션페인팅과 동일한 방법으로 물감을 얼굴에 튀기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그림 7>은 각 나라의 국기를 얼굴에 부분적으로 나타내어 월드컵 마케팅을 홍보한 CF이다. 현재 페이스페인팅은 이벤트 형식으로 많이 사용하여 대중적인 의미를 포함하며, 마케팅으로 회사나 제품을 광고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2) 판타지메이크업(Fantasy Make-up)

판타지메이크업은 주제에 맞게 상상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다양한 재료와 컬러를 사용하여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메이크업으로 전위적이고 실험성이 강한 예술 형태를 표출한다.

판타지메이크업을 디자인 할 때는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여 작품과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하며 선과 면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얼굴의 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현기법으로는 구체적인 표현과 추상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구체적인 표현은 실물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인어, 용, 천사 등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판타지메이크업의 특징은 기존의 전통을 거부한 강렬한 색채와 이질적인 소재 의도, 기하학적 형태 등의 혁신적인 표현과 상상의 세계를 추구한다.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특정한 사물이나 자연, 동물 등 기존의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 할 수도 있고 사

회적 이슈가 되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패션쇼나 잡지 등에서는 평범함을 벗어난 그로테스크나 그래픽적인 판타지메이크업에 표현되고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에스닉 판타지메이크업도 보여진다. 또한 전통적인 문양을 활용한 패턴 판타지메이크업은 곡선의 느낌과 독특하고 개성있는 나라만의 특색이 나타난다.

<그림 8>, <그림 9>는 자연의 소재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그림 8>은 자연소재의 오브제를 활용하여 사자의 느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9>는 오묘한 색채의 신비감과 이질적이고 전위적인 예술 형태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듯 메이크업 분야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판타지메이크업은 뷰티메이크업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작가의 내면의 의지를 작품에 투영시키고 있다.

3)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바디페인팅은 인체에 채색하고 디자인하는 것으로 작가의 생각과 주제에 따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방법을 이용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미술사조로 볼 때 개념미술의 한 분류이며 퍼포먼스아트의 선구로서, 명칭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몸을 재료로 하는 미술 형태이다.⁸⁾ 즉,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안료를 사용해 색칠함으로써 미를 창조하는 장르이며 신체에 행해지는 메이크업으로 예술성, 창작성, 컬러, 표현 주제에 구속받지 않고 전체 이미지를 중심으로 표현되는 조형예술이라 할 수 있다.

바디페인팅의 기원은 원시시대 때 동물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얼굴이나 몸에 그림이나 부호를 그려 넣은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에서 얻은 원료를 이용해 몸에 칠을 하였던 것에서 비롯하여 발전과 쇠퇴를 거듭해오면서 현대의 바디페인팅은 메이크업의 꽃이라 불리며 종합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작품 전체의 통일성과 창작성이 요구되며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8) 홍세원(2001), 「무대분장에 나타난 Body Art 의 연구 : painting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음영의 차이를 통해 울동감과 생동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아티스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인체에 담아내어 시각적 언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림 10>은 오브제를 활용한 바디페인팅 기법으로 바디에 질감 표현을 한 것으로 피부를 통해서 지각되고, 시각적 질감이 포함되는 방식이다. 질감은 작품의 이미지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1>은 회화적 요소를 이용한 바디페인팅 기법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법이다.

조형물로서의 바디페인팅은 인간 내부의 예술적 사상과 정서가 외부의 인체라는 대상을 통해 유형화된 것이다. 그리고 작가의 자발성, 독창성, 재료의 질감이 결합된 자유로운 표현이며 모델에 의한 연출로 다양하게 변화되는 특징을 지닌다.⁹⁾ 따라서 바디페인팅은 창작성과 더불어 조화와 통일감이 요구되고 모든 주제는 예술적 영감과 표현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9) 박보영(2002), 『Make up art』, 서울 : 청구문화사, p.206.



<그림 6> 페이스페인팅

[http://blog.naver.com/tksqksgkh46?
Redirect=Log&logNo=130116851060](http://blog.naver.com/tksqksgkh46?Redirect=Log&logNo=130116851060)



<그림 7> 페이스페인팅

<http://artsnews.mk.co.kr/news>



<그림 8> 판타지메이크업

<http://blog.naver.com/h3133712/130076695122>



<그림 9> 판타지메이크업

[http://blog.naver.com/analum
?Redirect=Log&logNo=60137116244](http://blog.naver.com/analum?Redirect=Log&logNo=60137116244)



<그림 10> 바디페인팅
<http://neolook.net>



<그림 11> 바디페인팅
<http://www.paintedalive.com/gallery/toes.html>



4. 아트메이크업 표현기법

현대사회의 양상에서 아트메이크업은 새로운 기법과 변화를 지향하며, 표현하는 수단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작가의 독특한 개성의 추구하고 예술성을 전달할 수 있는 무한한 표현영역을 창출 할 수 있는 종합예술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혜선(2010) 「한국 전통색채와 문양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에 의한 분류, ‘재료 및 도구’에 의한 분류, ‘표현양식’에 의한 분류로 구성하였다.

1) 패턴의 의한 분류(Classification by Pattern)

(1) 구상적 기법(Concrete Technique)

구상적 기법은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으며 꽃, 나비, 나무, 바다 등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소재를 통하여 인체에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구상적 기법은 자연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적인 구상적 기법’과 사실의 형상들이 왜곡, 변형, 생략된 ‘비사실적인 구상적 기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12>는 ‘비사실적인 구상적 기법’으로 모티브를 왜곡하여 반비례적으로 구성한 작품이며, <그림 13>은 ‘사실적인 구상적 기법’으로 일정한 형태와 사실적인 소재의 꽃을 묘사한 작품이다.

구상적 기법의 사실적인 구상은 재현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사실적인 구상은 자연대상에 대한 작가의 해석과 내면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 추상적 기법(Abstract Technique)

<그림 14>, <그림 15>는 직접 경험하거나 어떤 사물을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인체에 추상적으로 표현한 기법이다.

추상적 기법은 형태와 색채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예를 들어 질투, 정열, 희망과 같은 추상, 명사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연상 이미지와 색채를 기본으로 작가의 주제와 테마가 있어야 한다.

(3) 그래픽적 기법(Graphic Technique)

그래픽이란 입체매체와 상대되는 용어이다. 그래픽(Graphics)의 어원은 그리스어 그라피코스(Graphikos)로 ‘쓴다’, ‘도식화 한다’ 는 의미가 있다.¹⁰⁾

그래픽 표현은 회화적 표현과 상반되는 기법으로 추상적인 모티브를 형상화하는 바디페인팅 기법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문자, 회화, 사진, 잡지, 광고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픽 표현기법의 특징은 <그림 16>, <그림 17>과 같이 선과 선의 나열, 흑백의 조화, 다양한 도형체 등 기하학적인 형태를 규칙적으로 반복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나열하는 강렬한 색채대비를 통해 강렬한 이미지로ダイナ믹하게 표현된다. 물감을 인체에 뿌리거나 흘러내릴 때 우연히 얻어지는 즉흥적인 페인팅도 이 부분에 해당되며 행위예술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재료의 의한 분류(Classification by Material)

(1) 브러시를 활용한 회화적 기법(Pictorial Expressive Technique)

<그림 18>, <그림 19>는 회화적 요소를 이용한 바디페인팅 기법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법이다. 파운데이션, 아쿠아 물감 등 다양한 재료들이 활용되며 작가의 색채 감각, 개인적 취향, 의도와 역량에 따라 묘사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 꽃, 동물, 우주, 인물, 바다 등 자연물에서 우주공간까지 소재가 광범위하며 표현하는 작가에 따라 독창적으로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다. 작가의 창의적인 예술적 감성을 시각화하는 기법으로 메시지 전달이 용이하여 관객과 쉽게 소통할 수 있다.

10)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2) 에어브러시 기법(Airbrush Technique)

에어브러시 기법은 컴프레서를 이용하여 물감을 일정한 공기의 압력으로 밀어내어 건을 통해 분사하는 기법으로 사실적이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다. 핸드페인팅에 비해 시간이 단축되고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최근 에어브러시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에어브러시가 우리나라에 전수된 것은 1940년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인쇄제판의 수정과 음화 및 양화사진의 수정 등에 사용되었고 현재는 그래픽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현대회화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¹¹⁾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은 인체에 무해한 에어브러시 전용 물감을 사용해야 하며 에어브러시 바디페인팅은 아주 편리하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옷의 주름을 붓 터치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¹²⁾

에어브러시 기법은 <그림 20>, <그림 21>과 같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로 입체감을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일정한 형태의 디자인 연출을 할 수 있다. 또한 종이나 필름지에 원하는 모양을 오려서 분사하면 스텐실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오브제 기법(Objet Technique)

오브제는 라틴어 ‘Objectum’에서 기원된 말로서 ‘앞으로 던져진 것’이라는 뜻이며 객체 또는 대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오브제의 사전적 의미는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인식되는 것과 주체(Subject)가 안주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오브제 표현기법은 <그림 22>, <그림 23>과 같이 바디에 질감 표현을 한 것으로 시각과 촉감을 자극하는 방식이다. 질감은 작품의 이미지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오브제의 소재로는 종이, 옷감, 깃털, 반짝이, 금속, 레이스, 비즈, 머드

11) 김공웅(1991), 『Airbrush Illustrations, 』 서울 : 도서출판 조형사, p.140.

12) 황주연(2011), 「단청문양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연구 : 보물로 지정된 사찰에 나타난 단청문양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13) 김영숙(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등 인체에 사용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재료도 제한 없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조형적이고 창의적인 표현 효과를 주고 있다.

질감은 형태, 색채와 함께 필수 조형요소 중 하나로 실제로 물체의 표현이 갖는 특성이나 안료의 성질, 물적 대상의 양감 등을 가지고 촉각, 시각적으로 환기시키는 효과를 말한다.¹⁴⁾

3) 표현방식의 의한 분류(Classification by Representation)

(1) 일반양식(Basic Technique)

일반양식은 <그림 24>, <그림 25>와 같이 여러 가지 회화적 요소를 이용한 바디페인팅의 기법으로서 바디페인팅의 표현기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된다.

정밀한 사실묘사, 관념적 묘사, 양화 등 작가의 의도나 역량에 따라 다양해진다. 색상의 사용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작가의 색채감각이나 개인적인 취향 또는 주제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이 되기도 한다. 또한 똑같은 주제라도 회화적 기법이 아니라 에어브러쉬 기법이나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디지털 페인팅 등 표현기법에 변화를 주면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이 된다.¹⁵⁾

(2) 트롱프뢰유(Trompe-l'oeil)

트롱프뢰유는 ‘속임수 그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공예적 기법으로 기술어져 있으나 물체의 명암, 양감, 질감을 회화 형식으로 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네덜란드 화가 ‘일란’의 작품이 유명하며 이 작품은 극명한 묘사력이 착각을 일으켜 마술적인 효과를 내어 초현실주의 작가의 작품에서 보여진다.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그림 29>는 바디아트 분야에서는 옷을 모방하거나 인체가 배경과 혼합일체가 되어 시각적으로 착각을 일으

14) 박정임(2005), 「바디아트의 질감 표현에 관한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1.

15) 상계논문, p.13.

키는 효과가 있다.

(3) 일루미네이션 기법(Illumination Technique)

<그림 30>, <그림 31>은 일루미네이션 기법으로 페인팅을 직접적으로 바디에 한다기보다는 특정한 형상을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투영시키는 간접적인 기법이다.

미국의 멀티미디어 프로듀서로부터 작업되었고 이 기법으로 바디페인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디에 투영할 영상을 촬영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제작하여야 한다. 이후 그 영상과 어울리는 모델을 선정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포즈를 취하게 하고 촬영한 영상을 투영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으로 바디페인팅을 하기 위해서는 벽면을 검게 하는 것이 작가가 의도하는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¹⁶⁾

(4)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기법(Ultra Violet Technique)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기법은 <그림 32>, <그림 33>과 같이 물감에 빛을 결합한 과학적인 기법이다. 발광물감은 청보라빛을 띄는 UV라이트라는 특별한 조명기구에 비추지면 더욱 선명하고 투명한 색상을 발광하여 캄캄한 무대에서도 환상적이고 신비한 효과를 낼 수 있다.¹⁷⁾

UV는 현실의 단순한 모방이 아닌 작가의 의도와 의미에 함축하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관객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기법은 주로 무대공연이나 쇼, 영화, 광고 등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며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빛, 색감, 명암의 기본속성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 지각효과인 색의 대비, 운동감, 원근감, 공간감에 따라 착시효과가 일어나며 색이 갖는 상징성이 심리적 연상을 유발함으로써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지각원리를 통해 3D를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3D효과와 화려한 색의 속성은 무대의 블랙배경색과 조명이 함께 어우러진 발광하는 색의

16) 이유나(2011), 「시물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6.

17) 황주연(2010), 전개논문, p.10.

변화로 인해 찬란한 광채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같은 시각적 효과는 UV색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네온색의 감각이 있기 때문이다.

(5) 3D컴퓨터 기법(3D Computer Technique)

<그림 34>, <그림 35>는 컴퓨터를 이용해 만드는 특수기법으로 신체 자체를 3D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든 후 그 굴곡된 형상에 따라 작가가 의도한 이미지를 신체에 그대로 새겨 넣는다. 컴퓨터상의 정교한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3D그래픽 작업을 프린트하기도 하고, 영상으로 투사하기도 한다. 작업 방식은 디지털 데이터로 이루어진 하나의 소스를 디지털 프린트, 빔 프로젝션, 모니터 등의 여러 출력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use)방식을 추구하고 있다.¹⁸⁾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디지털 아트는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회화, 조각, 순수사진, 시각예술, 설치미술을 이루는 예술형태이다. 기술적으로 컴퓨터 기술이 핵심이 된다. 디지털 아트의 한 형태인 3D컴퓨터 기법은 2, 3차원의 그래픽 이미지를 창출하여 정지된 화상의 미적 개념을 다룬다.¹⁹⁾ 이처럼 과학적 기술의 발전은 예술적 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표현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작가의 독특한 개성의 추구하고 예술성을 전달할 수 있는 무한한 표현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종합예술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18) 황주연(2010), 전계논문, p.17.

19) 박천신(2008), 『디지털 아트 디지털 페인팅』, 서울: (주)한연, p.16.



<그림 12> 구상적 기법



<그림 13> 구상적 기법

<http://blog.naver.com/h3133712/130074582598> <http://blog.naver.com/h3133712/130074582598>



<그림 14> 추상적 기법

<http://cafe.naver.com/chensang/29>



<그림 15> 추상적 기법

<http://cafe.naver.com/chensang/29>



<그림 16> 그래픽적 기법

<http://blog.naver.com/h3133712/130074582598>



<그림 17> 그래픽적 기법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l?cID=&ar_id=NISX20080811_0008746776



<그림 18> 브러시 기법

<http://www.paintedalive.com/gallery/toes.html>



<그림 19> 브러시 기법

<http://blog.naver.com/whaksgus60?Redirect=Log&logNo=110098737510>



<그림 20> 에어브러시 표현기법
<http://www.paintedalive.com/gallery/winter.html>



<그림 21> 에어브러시 표현기법
<http://blog.naver.com/rabo10/140127913088>



<그림 22> 오브제 기법
 개인소장자료



<그림 23> 오브제 기법
<http://paintingfoto.blogspot.com>



<그림 24> 일반양식
김양은 외 2명(2009) 『아트메이크업』



<그림 25> 일반양식
[http://blog.naver.com/whaksgus60?](http://blog.naver.com/whaksgus60?Redirect=Log&logNo=110098737510)
[Redirect=Log&logNo=110098737510](http://blog.naver.com/whaksgus60?Redirect=Log&logNo=110098737510)



<그림 26> 트롱프뢰유 기법
<http://cafe.naver.com/hs3133>



<그림 27> 트롱프뢰유 기법
[http://blog.naver.com/fourl?](http://blog.naver.com/fourl?Redirect=Log&logNo=126605439)
[Redirect=Log&logNo=126605439](http://blog.naver.com/fourl?Redirect=Log&logNo=126605439)



<그림 28> 트롱프뢰유 기법

http://cafe.naver.com/herco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0&



<그림 29> 트롱프뢰유 기법

<http://blog.naver.com/fourl?Redirect=Log&logNo=126605439>



<그림 30> 일루미네이션 기법

<http://blog.naver.com/h3133712/130074582598>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전시도록(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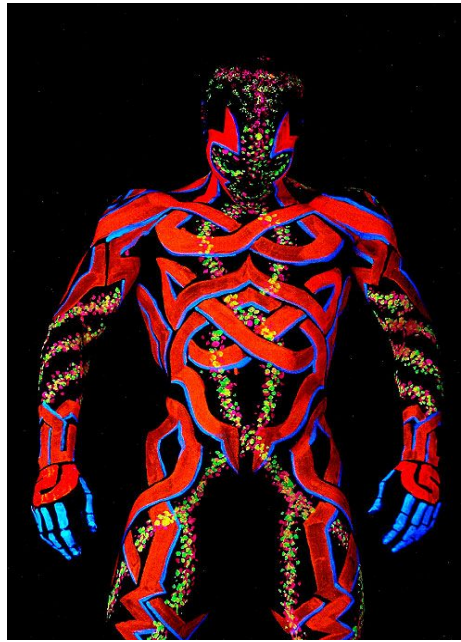


<그림 31> 일루미네이션 기법



<그림 32> UV 기법

<http://blog.naver.com/h3133712>



<그림 33> UV 기법

<http://www.wolf-bodymagic.de/>



<그림 34> 3D컴퓨터 기법

<http://blog.naver.com/tttww2003>



<그림 35> 3D컴퓨터 기법

<http://blog.naver.com/tttww2003>

제 3 장 감성시각 측면에서의 아트메이크업 사례분석

제 1 절 감성시각 측면에서의 아트메이크업 사례분석

시각적 관점에서 표현되는 아트메이크업의 미적가치가 다원화되었다. 감성시각 측면에서 생성되는 시각정보는 인간이 사물을 인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각기로 입력되어지는 모든 자극들을 말한다. 본 장에서는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감성적 측면의 시각예술로 나타나는 색상, 질감, 형태, 패턴으로 분류·분석하였다.

1. 색상

<그림 36>, <그림 37>은 색상과 질감을 응용한 작품으로 색이 갖는 본질적인 성격과 질감의 촉각감을 동시에 표현한 작품이다.

색상은 인간에게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로 미학에서는 감성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전달되며, 색상과 인간, 또는 인간과 인간의 지적, 생리적, 감성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림 36>은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검정 색상을 사용하였다. 검정색은 힘을 상징하며, 심리적인 요소로 우울함, 어두움, 강렬함 등의 감정을 전달한다. 피부표현은 흰색톤으로 창백하게 표현하였으며, 아이, 립 메이크업은 검정색으로 강렬한 작품의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다. 촉촉하고 글로시한 느낌으로 질감을 나타내었으며, 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눈썹은 깃털의 부드러운 느낌으로 오묘함을 나타내었다. 눈 밑은 에어브러시를 사용하여 깔끔한 선과 그라데이션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더해주었다. <그림 37>은 검정색과 상반되는 핑크색을 주요 색상으로 사용하였다. 핑크색은 따뜻하고 포근하며 사랑스러운 감정을 유발시킨다. 피부톤을 밝게하여 다소 차가워 보이게 표현하였지만 눈썹의 색상은 핑크색 느낌과 같은 밝은 브라운

계열을 사용하였다. 검정색의 아이라인은 길고 끝을 가늘게 그려주어 세련된 느낌으로 인위적인 인형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그림 36>, <그림 37>은 색상에 의한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요소가 아트메이크업과 함께 표현되었을 때 감성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들고 시각적인 감정을 수반한다.

<그림 38>, <그림 39>는 락 가수 마를린 맨슨(Marilyn Manson, 1969)의 메이크업 표현기법이다. 마를린 맨슨은 강렬한 색상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흉악함, 혐오감을 준다. 아름다움만을 ‘미’라고 정의할 수 없는 고스 메이크업의 ‘추미’의 매력을 엿 볼 수 있는 메이크업 방식이다. <그림 38>은 창백한 피부표현에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강하게 표현하였다. 흰색 렌즈를 착용하고 이빨에 금속성을 사용함으로써 마를린 맨슨의 추악하고 흉악한 모습을 더해주고 있다. <그림 39>는 창백한 피부톤으로 차갑게 표현하였으며, 검정색에 강한 아이메이크업에 중점을 두었다. 검붉은 입술은 혐오감을 들게 한다. 이러한 특성은 추상적인 인간의 심상을 구체적인 색이 갖는 성격으로 전환하여 해석할 수 있다.

2. 형태

<그림 40>, <그림 41>은 점과 선의 연결로 구성되는 형태를 응용한 작품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자체적 특질이고 표면과 모서리의 조합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림 40>은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아르누보의 곡선을 연결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심리적 작용이 강렬한 검정색상과 부드러운 곡선을 반비례적 구성으로 ‘역동적인’, ‘불안정한’ 감정을 부각시켰다. <그림 41>은 자연적인 꽃을 모티브로 하여 사실적인 성격을 표현한 작품으로 색감은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입체적으로 나타냈고 형태는 선의 굵기나 방향에 중점을 두어 꽃의 상징적인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

3. 질감

질감은 오감 중 촉각적인 동시에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대부분 재질이나 표면 구조 등에 따라 생기는 속성이다. 시각정보 요소로써 물체나 이미지 표면의 속성을 표현한다. <그림 42>, <그림 43>, <그림 44>, <그림 45>는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함으로써 부드러움, 말랑말랑, 두꺼움 등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작품이다. <그림 42>, <그림 43>은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작품으로 <그림 42>는 은색을 주조색으로 사이버틱한 느낌의 큐빅을 사용하여 재질의 투명도를 높여 신비스럽게 표현하였고, <그림 43>은 흰색의 속눈썹을 사용하여 눈을 부각시키므로 순백한 느낌으로 연출하였다. <그림 44>의 새하얀 피부는 창백하고 매트하며,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을 부여한다. 눈화장은 은색의 사이버틱한 켈러감으로 기이하고 음산한 느낌을 전달하며, 큐빅의 영롱하고 신비스러운 특성에 반해 차갑고 인위적인 느낌으로 보여진다. <그림 45>는 중국 경극의 분장형태로 푸른색과 보라색 계열을 사용하여 차가운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같은 색상의 오브제는 투명하게 비치는 소재로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질감으로 표현된 또 다른 메이크업의 질감요소는 대상이 어떤 재료를 갖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시각적 감성이 좌우된다. 따라서 이미지가 표현하는 질감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질감에 대한 감성을 정확히 인지, 표현 할 수 있다. 또한 두께, 무게, 온도, 조직, 결, 광택, 금속성, 투명도 등의 특정 재료적 특성 또한 감성에 영향을 준다.

4. 패턴

<그림 46>, <그림 47>, <그림 48>은 패턴의 형, 견본, 모형, 모양, 도안, 무늬 등의 디자인 행위에서 이루어진 작품으로 정돈된 배열을 뜻하고 형태에서 오는 감성의 부분 집합으로 표현된다.

<그림 46>은 반복적 패턴에서 벗어나 하나의 형태를 모티브로 응용하

여 정지된 바디라인에 장미의 꽃 봉우리를 디자인하였다. 이는 패턴의 자유구성과 기하구성에 의해 지각된다. <그림 47>, <그림 48>은 곡선의 특성을 응용하여 양쪽에 같은 패턴을 반복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7>은 눈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하였으며, <그림 48>은 스텐실 기법을 응용한 작품으로 문양은 모티브와 패턴으로 분류되며 모티브는 문양을 이루는 형태의 기본 단위, 패턴은 모티브가 모여서 이루는 문양의 전반적인 조형 단위로 정의한다. <그림 48>은 창백하고 차가운 레드색상을 사용하였으며, 뱀파이어의 느낌으로 뱀 가죽 같은 스텐실 모양을 사용하여 음산한 기운을 전달한다.





<그림 36> 색상을 응용한 작품
http://cafe.naver.com/bobbibrownkore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5166



<그림 37> 색상을 응용한 작품
<http://cafe.daum.net/makeupchoi/Fqly/10?docid=17Y06|Fqly|10|20061215221125&srchid=IIM3ZTmM000>



<그림 38> 색상을 응용한 작품
<http://cafe.daum.net/hanryulove/J1EO/>



<그림 39> 색상을 응용한 작품
<http://cafe.daum.net/hanryulove/J1EO/>



<그림 40> 형태를 응용한 작품
<http://blog.naver.com/mkuphighheel>
 Redirect=Log&logNo=100134650725



<그림 41> 형태를 응용한 작품
<http://blog.naver.com/mkuphighheel>
 Redirect=Log&logNo=100134650725



<그림 42> 질감을 응용한 작품
<http://blog.naver.com/mkuphighheel?Redirect=Log&logNo=100134650725>



<그림 43> 질감을 응용한 작품
<http://blog.naver.com/lake456?Redirect=Log&logNo=40120311406>



<그림 44> 질감을 응용한 작품
<http://blog.naver.com/mkuphighheel>
 Redirect=Log&logNo=10013465072



<그림 45> 질감을 응용한 작품
<http://blog.naver.com/mkuphighheel>
 Redirect=Log&logNo=100134650725



<그림 46> 패턴을 응용한 작품
<http://blog.naver.com/tksqksghk46?Redirect=Log&logNo=130116851060>



<그림 47> 패턴을 응용한 작품
[http://blog.naver.com/mkuphighheel?](http://blog.naver.com/mkuphighheel?Redirect=Log&logNo=100134650725)
[Redirect=Log&logNo=100134650725](http://blog.naver.com/mkuphighheel?Redirect=Log&logNo=100134650725)



<그림 48> 패턴을 응용한 작품
[http://blog.naver.com/bellusion?](http://blog.naver.com/bellusion?Redirect=Log&logNo=100138358950)
[Redirect=Log&logNo=100138358950](http://blog.naver.com/bellusion?Redirect=Log&logNo=100138358950)



제 4 장 작품제작

제 1 절 감성시각 측면에서의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되는 감성의 집약적인 지식에서 생성되는 디자인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국한하였다. 감성공간에서 생성된 시각예술로 나타나는 색상, 질감, 형태, 패턴을 연구결과에 따라 의도적으로 아트메이크업에 적용하여 작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각예술에 나타나는 감성과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이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 영역확대에 가능성에 대한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이는 트렌드를 창조하는 메이크업 영역에 21세기의 사회·문화적 트렌드인 감성에 중점을 두어, 관련분야에서 연구되지 않은 영역으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자가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성시각 측면에서 제작된 7작품을 통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종합예술로서의 아트메이크업뿐만 아니라 각각에 나타난 작품에서의 감성 유발, 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입증은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관적인 결과를 실증적 입증을 도모하기 위해서 메이크업 실무경력 10년 이상 종사자와 관련학과 석사이상자 10인을 대상으로 백선경(2008), 「감성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시각정보 요소별 감성공간 생성」을 바탕으로 한 감성공간의 시각요소인 색상, 형태, 질감, 패턴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이미지를 보고 느끼는 감성에 대해 1차 인터뷰를 9월 26일부터 9월 30일, 5일간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 7점에 대한 2차 인터뷰는 11월 1일부터 11월 3일, 3일간 실시하였다. 1차 인터뷰 결과인 감성공간에서 시각적 요소별 인지능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색상에서 빨강색은 10명 모두가 ‘열정, 강열, 사랑’이라고 응답했으며, ‘검정색은 어두움, 공포, 강렬’이라고 응답하였다. ‘핑크색은 여성스러움, 사랑스러움, 부드러움’, ‘갈색은 편안함, 중후함, 고상함’, ‘파랑색은 시원함, 청결함’, ‘노랑색은 유아스러움, 발랄함’, ‘녹색은 편안함, 상쾌함, 안정됨’이라고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둘째, 5가지 형태를 예시로 한 인터뷰 결과 중 ‘동그라미 형태는 원만함,

부드러움’, ‘세모 형태는 날카로움, 안정됨’, ‘네모 형태는 정직함, 묵직함, 안정됨’, ‘다이아몬드 형태는 날카로움, 세련됨, 대칭적’, ‘원각뿔 형태는 날카로움, 불안정’이라고 전체적으로 유사한 응답을 하였다.

셋째, 질감에서 ‘금속은 차가움, 냉철함’, ‘나무는 따뜻함, 안락함, 부드러움’, ‘돌의 질감은 딱딱함, 거칠다’, ‘유리는 투명함, 날카로움, 맑음’이라고 응답했다.

넷째, 4가지 패턴으로 ‘정렬된 패턴의 느낌은 안정, 비례’, ‘체크무늬의 패턴에서는 딱딱함, 활동적, 반비례’, ‘사선패턴은 속도감, 날카로움, 차가움’, ‘정렬이 없는 패턴에서는 복잡함, 어지러움, 기하학적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감성공간의 시각요소인 색감, 형태, 질감, 패턴의 이미지를 보고 느끼는 감성에 관한 1차 인터뷰 결과는 디자인 계열의 통계적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인간에게 시각적 요소로 인지되는 감성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값이라고 측정할 수 있으며, 4가지 시각요소 중 색상에서 가장 빠르게 감성을 인지하고, 패턴에서 느리게 인지함을 알 수 있었다.

앞선 연구결과에 따라 감성공간의 시각요소인 색감, 형태, 질감, 패턴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여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7점 제시하였다.

1. 작품 1 - Escapism (현실도피)

1) 작품제작 의도

현실사회에서 익숙해져버린 인간의 이중성 삶을 표현하고자 한다. 현대인은 스스로 자아를 형성하면서 생활한다. 세상을 피난처로 삼아 도피하는 심리적인 인간의 내면성을 작품으로 연출하였다. 푸른색과 보라색계열을 사용하여 차분함 안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연상시켰으며, 동일 색상의 오브제로 분위기를 더하였다. 또한 상대적인 소재인 형태적인 메탈로 날카롭고 오묘하며, 냉소한 이미지가 형상화되도록 나타내었다.

2) 작품제작 과정

제작 과정으로는 첫째, 차가운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모델의 피부보다 한톤 밝은 파운데이션을 스폰지를 사용하여 얇게 펴서 발라준 후 피부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량의 흰색 파우더로 가볍게 파우더링하였다.

둘째, 아이메이크업은 모델의 아이홀에 맞추어 푸른색 아이섀도우로 선이 생기지 않게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어주고, 동일색상의 글리터를 사용하여 눈두덩이에 덧발라 질감을 나타내었다. 아이라인 또한 푸른색으로 눈선 앞쪽에서 뒤쪽으로 색감이 또렷하게 보이도록 그려주고, 은색의 큐빅 속눈썹으로 마무리하였다.

셋째, 볼터치는 오브제의 색감의 느낌과 어울리면서 상반되는 열은 붉은 보라로 입체감을 주었으며, 보라색의 립을 사용하여 아이메이크업과 전체적인 색감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표현하였다.

넷째, 오브제로는, 차가워 보이는 메탈은 눈두덩이 위에서 헤어라인쪽으로 부드러워 보이는 깃털은 헤어탑에서 얼굴 안쪽으로 연출하여 전체적인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작품 1] Escapism (현실도피)



2. 작품 2 - 飛上 (비상)

1) 작품제작 의도

하늘의 지배하는 강한 독수리를 모티브로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독수리는 ‘비상하다’, ‘의지가 강한’ 등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검정 색상을 사용하였다. 검정색은 힘을 상징하며, 심리적인 요소로 어두움, 강렬함 등의 감정을 전달한다. 색상과 형태를 응용한 작품으로 본질적인 느낌을 시각적 감정으로 표현하였다.

2) 작품제작 과정

제작 과정으로는 첫째, 깨끗한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흰색 파운데이션을 스폰지를 사용하여 두껍게 발라준 후, 하늘을 연상시키는 스카이블루 색상으로 은은하게 수평으로 볼터치를 하였다.

둘째, 독수리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양쪽의 노즈선에서 사선방향의 헤어라인까지 검정색으로 형태를 만들어주며 깃털의 형상은 날림 브러쉬 기법을 적용하여 표현하였다. 표현된 깃털 사이사이에는 흰색의 도란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또한 노즈선과 같은 방향으로 눈앞머리에 포인트를 주고 풍성한 속눈썹과 입자가 굵은 펄로 마무리하였다.

셋째, 헤어는 얼굴 피부톤과 동일하게 흰색으로 연결하고, 고요한 공간감을 나타내기 위해 워터스프레이를 활용하여 부분적인 입자를 형성하였다.

[작품 2] 飛上 (비상)



3. 작품 3 - S·S (Shining Spirit)

1) 작품제작 의도

추운 겨울날 따뜻한 눈꽃처럼 빛나는 화려함과 따뜻함, 네온 속에 찬란한 광채의 색감을 감성적으로 표현하였다. 네온 속에서 비추어지는 흔들리는 눈의 결정체를 모티브로 다양한 색감과 오브제를 활용하여 색상의 채도, 명도, 광택감을 더해주었다.

2) 작품제작 과정

제작 과정으로는 첫째, 모델의 피부톤보다는 밝은 크림화운데이션으로 묻치지 않게 골고루 펴서 바르고 펄파우더를 가볍게 여러번 덧발라주어 글로시한 질감을 연출하였다. 얼굴 중심은 오브제의 광택감과 어울리도록 소량의 펄감을 부여한다.

둘째, 아이 메이크업은 아이홀을 중심으로 눈두덩이 전체에 핑크색과 흰색을 사용하여 밝게 표현하고, 검정색으로 아이라인, 쌍꺼풀라인을 굵게 그려주어 선명도를 높여주었다. 또한 광택감을 주는 큐빅 속눈썹으로 샤이닝한 분위기를 부각시켰다.

셋째, 헤어라인에서 얼굴 중심쪽으로 네온 속에서 비추어지는 흔들리는 눈의 결정체를 표현하기 위해 도란의 다양한 색감을 사용하여 브러시의 날림기법을 적용하여 터치하였다.

넷째, 따뜻함을 연출하기 위해 흑백 깃털의 오브제로 얼굴 부위를 감싸안듯이 고정시키고, 눈얼음 광채의 큐빅 오브제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구성되도록 연출하였다.

[작품 3] S·S (Shining Spirit)



4. 작품 4 - 꿈을 꾸다...

1) 작품제작 의도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한 줄기의 풀잎에 희망을 담아 누구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을 작품에 담았다. 피어나는 풀잎을 모티브로 하여 신뢰감, 안정감, 평안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녹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다.

2) 작품제작 과정

제작 과정으로는 첫째, 모델의 피부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스킨 펄파운데이션을 얇게 발라주어 질감을 나타내었다.

둘째, 아이메이크업은 눈두덩이에 연한 녹색으로 리퀴드 아이섀도우로 그라데이션하여 전체적으로 발라준 후, 진한 녹색으로 눈꼬리에서 아이홀 방향으로 그라데이션하여 음영을 준다. 마무리로 눈썹뼈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흰색을 사용하였다. 모델의 눈썹 또한 형태를 그대로 그려주어 자연스럽게 연출하였다.

셋째, 모티브인 풀잎을 먼저 스케치하고 아이메이크업과 동일한 색상의 리퀴드 아이섀도우로 그려서 입체감을 주고, 검정과 흰색 라인으로 풀잎의 윤곽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선명도가 높은 다홍색감의 루즈를 사용하여 오버된 입술을 표현하였다.

[작품 4] 꿈을 꾸다...



5. 작품 5 - 모방

1) 작품제작 의도

[작품 5]는 표현주의 뭉크의 절규를 모방하여 미화시킨 작품이다. 모방은 말 그대로 다른 작품을 모방하여 작가의 의도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이다. 표현주의의 예술은 주관적 현실의 확장으로서 창조하려 했던 경향의 표현에 있어 ‘왜곡’과 ‘과장’이 특징이다. 표현주의의 근원인 원근법과 명암을 무시하고 형태를 왜곡, 변형한 것을 현대화하여 윤곽, 형태를 강조하여 내면세계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아트메이크업으로 새롭게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작품의 스토리인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슬픔, 죽음에 대한 모호한 공포심에 대한 인간의 감성을 작품에 반영하였다.

2) 작품제작 과정

제작 과정으로는 첫째, 창백한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흰색 파운데이션을 스폰지를 사용하여 두껍게 도포하였다. 얼굴의 굴곡과 음영은 노랑색과 주황색을 페이스라인 안쪽으로 부분적으로 그라데이션하고 콧망울까지 동일 색상으로 연결하였다.

둘째, 얼굴을 중심으로 비대칭하게 구성하여 한쪽은 블랙 아쿠아플감을 사용하여 과장된 눈썹 모양과 노즈셰도우, 입술 라인, 턱 라인을 그려 얼굴을 인위적으로 보이게 나타내었다. 반대쪽은 보라색 아이셰도우를 사용하여 아이홀 위를 기점으로 눈썹, 관자놀이까지 삼각형 구도의 형태로 색감을 부여하였다.

셋째, 과장되게 큰 눈을 강조하기 위해 아이라인을 상꺼풀 라인 위로 강하게 그렸으며, 언더라인도 2mm 띄어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붓 끝을 날리며 그려주었다. 마지막으로 위, 아래에 속눈썹을 붙여 날카롭고 공포스러운 느낌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작품 5] 모방



6. 작품 6 - 정원

1) 작품제작 의도

색상과 형태를 응용한 작품으로 아르누보의 부드러운 곡선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푸르른 정원과 나무의 자연적인 소재를 모티브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며 평안한 마음을 나타낸 작품이다. 주조색인 녹색의 편안과 안정됨은 아르누보의 곡선의 부드러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2) 작품제작 과정

제작 과정으로는 첫째, 모델의 피부톤과 유사한 소량의 크림화운데이션을 스펀지로 골고루 펴서 발라준 후, 펄파우더로 가볍게 파우더링하여 질감을 나타낸다.

둘째, 위아래 눈선에 검정펜슬로 라인을 굵게 그려준 후 그라데이션하고 눈두덩이 앞부분에는 흰색 아이섀도우로 컬러링한다. 눈꼬리에서 아이홀 방향으로 녹색으로 그라데이션하면서 색감을 표현하고 눈꼬리 부분은 검정색상으로 음영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때 녹색과 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라데이션 하는 것에 유의한다.

셋째, 눈썹은 검정 펜슬로 모델의 눈썹보다 길게 그려주고 눈썹머리에서 아이메이크업 색감과 검정색상을 믹싱하여 코 벽을 새워주면서 노즈선과 아이홀을 연결하였다. 마무리로 눈썹 뼈에 흰색 펄 하이라이트로 주어 눈의 음영을 부각시켰다.

넷째, 아르누보 형태의 곡선을 응용하여 얼굴과 목선 아래의 바디까지 연결하여 흰색 펜슬로 스케치하고 가는 붓으로 방향에 따라 색감을 표현한다. 입체감을 표현하도록 형태마다 명암을 나타내고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의 윤곽과 컬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흰색 펄을 사용하여 중간 중간 그라데이션하여 리드미컬하게 표현하였다.

[작품 6] 정원



7. 작품 7 - 백조의 눈물

1) 작품제작 의도

동화속의 백조는 아름답지만 외로운 느낌을 전달해 준다. 순백한 백조의 아름다움을 연상하게 하는 깨끗한 화이트 톤과 우아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감정의 브라운 계열을 사용하여 백조의 감정을 형상화하였다.

색상과 질감을 함께 응용한 작품으로 색이 갖는 본질적인 성격과 글로시한 촉감적인 질감요소로 작품의 생명력을 더하였다.

2) 작품제작 과정

제작 과정으로는 첫째, 순백한 백조의 깨끗함을 표현하기 위해 모델의 피부보다 한톤 밝게 소량의 파운데이션을 스폰지를 사용하여 얇게 발라주었다. 피부의 화사하고 투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루스파우더로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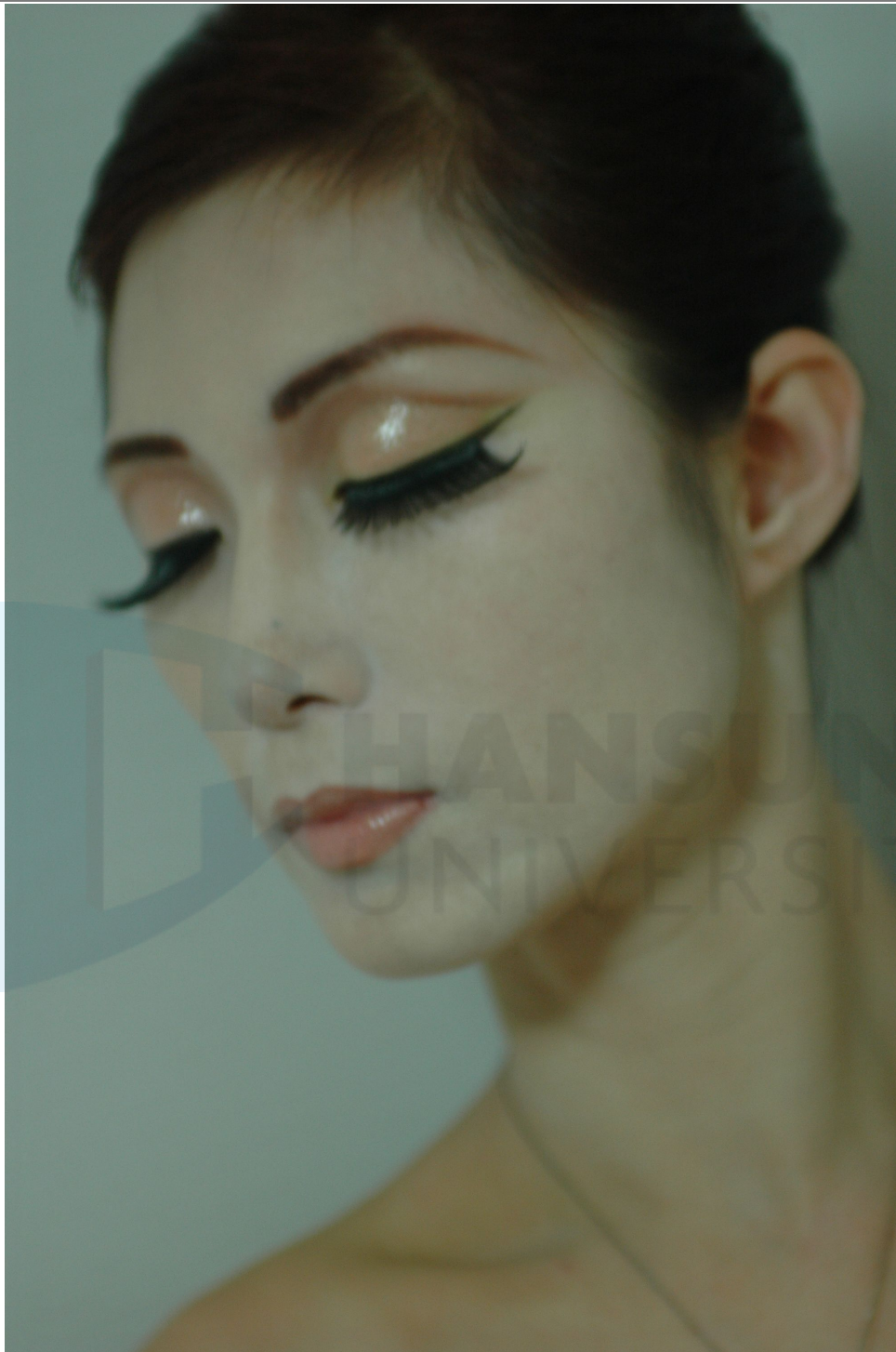
둘째, 눈이 부각된 아이 메이크업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브라운 계열로 모델의 눈썹보다는 조금 길게 그려 주었다.

셋째, 얼굴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노즈새도우로 코 벽을 새워 주고 T존 부위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얼굴의 음영을 표현하였다.

넷째, 아이홀을 눈꼬리보다 과장되게 길게 빼서 그려 주었다. 아이홀 안쪽으로는 한톤 밝은 브라운 계열로 색감을 발라주고 질감효과를 위해 누드색의 립글로스를 믹스하여 덮어주었다. 아이새도와 립글로스를 믹스하면 색감의 선명도와 질감도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눈을 부각시키기 위해 리퀴드 타입의 아이라인을 사용하여 눈꼬리를 길게 빼서 그려 주었으며, 풍성한 속눈썹을 사용함으로써 세련된 눈매를 연출하였다. 마무리 단계에 자연스러운 살구톤의 립을 사용하면서 아이메이크업의 색상과 조화롭게 표현하였다.

[작품 7] 백조의 눈물



감성공간의 시각요소인 색감, 형태, 질감, 패턴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이미지를 보고 느끼는 감성에 대한 1차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7작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1차 인터뷰와 같은 형태로 11월 1일부터 11월 3일, 3일간 2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한 총체적인 조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품 1]에서는 ‘푸른색과 창백한 피부톤은 차갑고 근접할 수 없는 도도함이 느껴지며, 은색 장식과 깃털의 오브제의 느낌은 전사적이며, 강렬하다’라고 응답하였다. 감성시각요소 중 색상과 질감에서 인지 할 수 있었고 본 연구자의 작품의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작품 2]는 ‘흰색, 검정, 푸른색의 조화로 슬프고 어두운 느낌, 흑조를 연상하게 하는 외로움과 고독함과 독수리 같은 강한 모티브로 상승형 이미지가 느껴진다’고 응답했다. 작품 의도와는 교차되게 나타났으며, ‘색상, 형태, 패턴의 요소로 느껴진다’고 답하였다.

[작품 3]은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여 화려하며, 불규칙한 선들과 오브제가 어우러져 신비스럽고 장엄한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인터뷰 내용에서는 [작품 3]에 적용된 시각 요소인 색상, 질감 외에 패턴요소가 표현되었다는 응답결과가 나왔다.

[작품 4]는 ‘녹색의 싱그러움을 살린 작품으로 피부의 광택 질감으로 인해 건강하고 신선한, 자연의 모습으로 그대로 묘사한 느낌’이라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색상과 질감의 느낌을 살린 작품’이라고 동일하게 답하였다.

[작품 5]에서는 ‘따뜻한 난색계열에 검정과 보라가 마치 장난스러운 듯하지만 냉정한 조커의 표정과 흡사하다. 또한 노랑색과 검정의 조화로 두려움, 경고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과도 유사하다’라고 응답했다. 색상과 형태를 응용한 작품으로 의도는 뭉크의 절규를 모방하여 색채는 화려하되 어두운 느낌의 작품을 표현하였다.

[작품 6]은 ‘부드러운 아르누보의 곡선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 속도감 있고 율동감이 느껴지며 녹색을 사용함으로써 안정된 작품’이라고 답했다.

[작품 7]은 ‘피부와 입술, 눈의 광택 질감으로 인해 깨끗하고 투명한 느

낌이 들고 누드톤의 안정됨, 따뜻함도 느낄 수 있다'고 응답했다. 본 작품은 우아한 백조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색상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우아함과 질감에서 느껴지는 깨끗함, 투명함을 부각시켰다.

2차 인터뷰 결과에서는 연구자의 작품제작 의도와 유사한 응답결과와 '인간은 아트메이크업을 통해 감성이 자극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작품을 통해 작가와 대중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며, 시각측면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제 5 장 결 론

21세기는 감성시대의 도래로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으며 이성과 감성이 융합하여 분석적 사고와 시각적인 사고가 동시에 중시되면서 과학, 기술, 예술은 이제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아트메이크업 또한 예술의 독창적인 분야로써 기교의 화려함뿐만이 아닌 미적표현을 극대화하며, 시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각예술로써 색상, 형태, 질감, 패턴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아트메이크업과 감성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관련분야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각적 관점에서 감성을 재조명하였으며, 아트메이크업의 시각자료를 통해 감성시각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인 감성시각의 실증적 입증에 도모하기 위해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종사자와 관련학과 석사 이상자 10인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차 인터뷰 결과로는 감성공간의 시각요소인 색상, 형태, 질감, 패턴의 이미지는 디자인 계열의 통계적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인간에게 시각적 요소로 인지되는 감성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값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1차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감성공간의 시각요소인 색상, 형태, 질감, 패턴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여 독창적인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7점 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2차 인터뷰 결과는 연구자의 작품제작 의도와 유사한 응답결과가 나왔다. 이는 작품을 통해 작가와 대중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며, 시각측면으로 제한된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인간은 아트메이크업을 통해 감성이 자극되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성공간의 시각요소를 접목한 작품제작에 따른 결과는 시각요소 중 색상을 통해 가장 빠르게 감성을 지각할 수 있었으며, 아트메이크업과 감성은 서로 일맥상통하였다. 또한 감성의 시각적 관점에서 표현되는 아트메이크업의 미적가치가 다원화, 전문화되어 아트메이크업 시각표현

영역의 확장 가능성이 뒷받침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시지각을 통해 감성, 감각적으로 느끼는 예술분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종합예술의 한 분야로써 작가와 대중들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에 관한 제한성으로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실증적 자료 구축을 시도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입증하였으나, 광범위한 감성 영역 중 시각적 측면만을 다룬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아트메이크업의 감성예술 도입이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미흡한 부분을 후속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공웅(1991), 『Airbrush Illustrations』, 서울 : 도서출판 조형사
박보영(2002), 『Make up art』, 서울 : 청구문화사
박천신(2008), 『디지털 아트 디지털 페인팅』, 서울: (주)한언
이미자(2009), 『응용아트메이크업』, 서울 : 경춘사
이순요, 양선모(1996), 『감성공학』, 서울: 청문각

2. 학위논문

- 강병석(1984), 「Total Fashion으로서의 make-up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금란(2010), 「오브제바디아트의 표현기법에 따른 심리적 반응 연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성희(2006), 「20세기 후기 미술에서 신체기호의 의미 분석과 해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세령(2011), 「바디페인팅(Body Painting)의 디자인 발상에 관한 연구 : 시각적 수사사고 이론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은(2004), 「선(線)을 강조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숙(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임(2005), 「바디아트의 질감 표현에 관한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선(2002), 「조선시대 민화의 문자도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에 관

- 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원길(2008),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표현기법 연구 : 바디아트를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2003), 「중국 경극 의상의 미적요소를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나(2011) 「시물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2003), 「피카소의 회화를 이용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선(2010), 「한국 전통색채와 문양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서경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하(2009), 「디지털 미디어를 적용한 감성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원(2008), 「감성의 개념 및 어휘 체계 정립을 통한 공감각 디자인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민령(2008), 「바디페인팅의 회화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 독립 장르 구축 방향 모색」,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원(2001), 「무대분장에 나타난 Body Art 의 연구 : painting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주연(2011), 「단청문양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연구 : 보물로 지정된 사찰에 나타난 단청문양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학술지

- 김명지, 최경희(2009), 「아르누보 문양의 조형적 특성을 이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Vol.9 No.3,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이구형(1998), 「감성과 감정의 이해를 통한 감성의 체계적 측정 평가」,
『한국감성과학회지』 Vol.19 No.1, 한국감성과학회

4. 인터넷 자료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전시도록(2009)

네이버 용어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동아 새국어 사전

마릴린 맨슨

<http://artsnews.mk.co.kr/news>

<http://blog.daum.net/yunsamuel/14782154>

<http://blog.naver.com/tksqksghk46?Redirect=Log&logNo=130116851060>

<http://blog.naver.com/tttww2003>

<http://blog.naver.com/h3133712/130074582598>

<http://blog.naver.com/ironcow6200>

<http://blog.naver.com/rabo10/140127913088>

<http://blog.naver.com/fourl?Redirect=Log&logNo=126605439>

<http://blog.naver.com/mkuphighheel?Redirect=Log&logNo=100134650725>

<http://blog.naver.com/lake456?Redirect=Log&logNo=40120311406>

<http://blog.naver.com/jinhaili?Redirect=Log&logNo=150046606008>

<http://blog.naver.com/h3133712/130076695122>

<http://blog.naver.com/analum?Redirect=Log&logNo=60137116244>

http://cafe.naver.com/herco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0&

http://cafe.naver.com/bobbibrownkore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5166&

<http://cafe.daum.net/makeupchoi/Fqly/10?docid=17Y06|Fqly|10|20061215221125&srchid=IIM3ZTmM000>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833200>

<http://mhttp://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nhn?code=68594&imageNid=3291610>

<http://neolook.net>

<http://paintingfoto.blogspot.com>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080811_0008746776

<http://www.paintedalive.com/gallery/toes.html>

<http://www.paintedalive.com/gallery/winter.html>

<http://www.wolf-bodymagic.de/>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감성시각 관점에서의 아트메이크업 작품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인 감성을 감성공간의 시각요소별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아트메이크업의 시각표현의 확대를 입증하고자 본 연구의 인터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문내용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귀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답해 주십시오.

인터뷰 및 설문결과는 순수 학문적 연구 목적만으로 사용되기에 모든 것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응답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 12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지도교수 : 최희자

연구자: 석사과정 오성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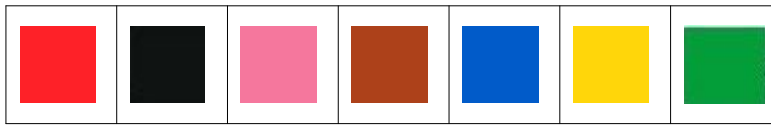
연락처: 010-2391-7088

I. 다음은 감성공간의 시각적 요소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내용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귀하께서 평소 갖고 계신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답해 주십시오.

* 감성이란 일반적으로 ‘이성(理性)’ 또는 ‘오성(悟性)’과 함께 인간의 인식능력을 뜻하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오감을 통해 감각하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설문내용의 감성에 대한 예문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성공간의 시각적 요소 중 색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색상을 보고 처음 느끼는 감성, 이미지를 연상해서 답해 주십시오. -



(본 이미지는 예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평소에 빨강색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2. 평소에 검정색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3. 평소에 핑크색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4. 평소에 갈색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5. 평소에 파랑색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6. 평소에 노랑색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7. 평소에 녹색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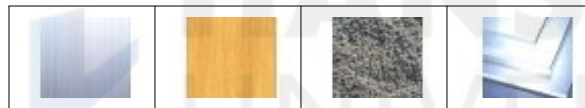
- 감성공간의 시각적 요소 중 형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고 처음 느끼는 감성, 이미지를 연상해서 답해 주십시오. -



(본 이미지는 예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평소에 동그라미 모양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2. 평소에 세모 모양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3. 평소에 네모 모양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4. 평소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5. 평소에 원각뿔 모양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 감성공간의 시각적 요소 중 질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소재의 질감을 보고 처음 느끼는 감성, 이미지를 연상해서 답해 주십시오. -



(본 이미지는 예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평소에 금속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2. 평소에 나무를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3. 평소에 돌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4. 평소에 유리를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 감성공간의 시각적 요소 패턴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고 처음 느끼는 감성, 이미지를 연상해서 답해 주십시오. -



(본 이미지는 예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평소에 모티브가 같은 패턴으로 나란히 정렬되어 있을 때 느끼는 감성은?
2. 평소에 선과 선이 만드는 체크무늬를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은?
3. 평소에 사선패턴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느끼는 감성은?
4. 평소에 모티브가 정렬 없이 이곳저곳 복합적으로 있을 때 느끼는 감성은?



HANSUNG
UNIVERSITY

Ⅲ. 다음은 연구자가 제작한 작품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작품을 보고 느끼는 감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작품 1>을 보고 느끼는 감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1-1. 위와 같은 감성을 느끼게 하는 시각적 요소는?(중복 가능)

(1) 색상 (2) 형태 (3) 질감 (4) 패턴

2. <작품 2>를 보고 느끼는 감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2-1. 위와 같은 감성을 느끼게 하는 시각적 요소는?(중복 가능)

(1) 색상 (2) 형태 (3) 질감 (4) 패턴

3. <작품 3>을 보고 느끼는 감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3-1. 위와 같은 감성을 느끼게 하는 시각적 요소는?(중복 가능)

(1) 색상 (2) 형태 (3) 질감 (4) 패턴

4. <작품 4>를 보고 느끼는 감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4-1. 위와 같은 감성을 느끼게 하는 시각적 요소는?(중복 가능)

(1) 색상 (2) 형태 (3) 질감 (4) 패턴

5. <작품 5>를 보고 느끼는 감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5-1. 위와 같은 감성을 느끼게 하는 시각적 요소는?(중복 가능)

(1) 색상 (2) 형태 (3) 질감 (4) 패턴

6. <작품 6>을 보고 느끼는 감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6-1. 위와 같은 감성을 느끼게 하는 시각적 요소는?(중복 가능)

(1) 색상 (2) 형태 (3) 질감 (4) 패턴

7. <작품 7>을 보고 느끼는 감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7-1. 위와 같은 감성을 느끼게 하는 시각적 요소는?(중복 가능)

(1) 색상 (2) 형태 (3) 질감 (4) 패턴

**** 시각 요소 중 감성을 가장 빠르게 자극하는 요소는?**

(1) 색상 (2) 형태 (3) 질감 (4) 패턴

**** 아트 메이크업과 감성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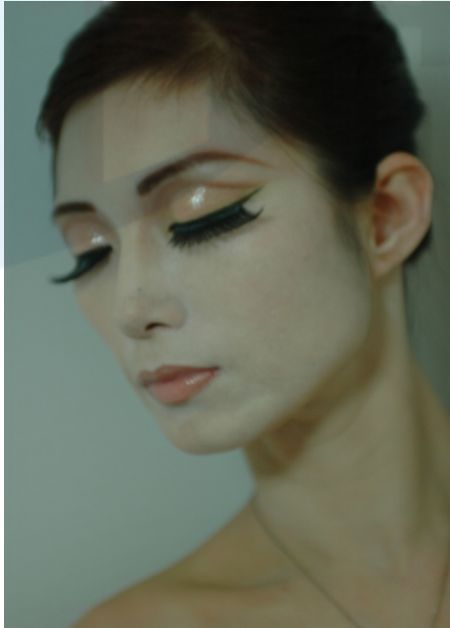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 아트메이크업은 시각예술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4]
	

[작품 5]	[작품 6]
	
[작품 7]	
	

ABSTRACT

A study on an Art Make-up work by visual Sensitivity point of view

Oh Sung Rim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Basically human have an aesthetic instinct and desire for beauty, one of a way to express of an aesthetic instincts is the make-up on a human body. By the present, the make-up has been developed as a form of art to express through the beauty of human body also, the make-up becoming spotlight as an one of the genre of the total art form that influenced by a fast-growing cultural industry, which blend with various categories.

The center of visual expression in Art make-up, one of the total art form has retains double aims that one of them is mass persuasion and the other one is cause aesthetic sensation. In other words, this art form constitutes to expand visual art that seek together with art, sensitivity and culture. Also, it is important culture, to express worth of inner of human which is combination of formative element and express by visual. Through the develop process, the make-up gives

new meaning that stimulated to sensitivity and subconscious of human, not only expressed about beauty.

Sensitivity is one of the five senses of human that is a very basic realm in human body. Human recognize a meaning of image through feeling that coincide of sensitives and tastes of human by the visual element at the sensitivity space. It is not simple to understand as an only visual media because there is a limit point, but eventually it gets the multiple meaning of artistic sensitivity, diversify and specialize with a harmony from an inner part of human.

Therefore, I like to suggest that a possibility of an art make-up design through shed new light on a point of view of visual sensitivity in art make-up which created from intensive knowledge of contemporary public.

A study of methods, Firstly, I considered about related to theatrical background of sensitivity and art make-up, based on an advanced research and references. secondly, I analysed art make-up works (a point of view of visual sensitivity) through visual materials.

I interviewed about Sensitivity with 10 people who are professional make-up artists and high education background people as a first interview. After the interview, I provided 7 creative art make-up works, intentionally I used pattern, texture, shape and color because they were outcome from 1st interview. Through the my works, I had 2nd interview to proved about a relationship between sensitivity and art make-up.

As a result of 1st interview, the image of visual elements of sensitivity space which are pattern, texture, shape and color that similar to a design affiliation statistical result. In other words, the sensitivity recognised as a visual elements was able to measure in common with human feeling.

As a result of 2nd interview, there was a similar answer with my intention of my works; It is possible to communicate between artist and the public(audience) through art make-up work. Also, the side of visual, sensitivity of human stimulated by the art make-up in the limited space. I found that the most fast sensitivity perception was 'color' in the sensitivity space, also the art make-up and sensitivity have something in common.

At once, it is an arts field that human can feel through the work such as sensitivity, sensible through the visual perception, formated a bond of sympathy, also it is support to get higher value of beauty as a part of total art form: this study proved that it is possible to visual communication between an artist and public.

The limited of the study, there were somewhat subjective views and vague points in the art make-up work, even though I tried build positive materials through the 10 of professional artists to proved objective result, but I feel inconvenience about only study visual side in the widespread area of sensitivity.

Finally, I expected that it is new opportunity to involved sensitivity art form of art make-up. However, I left some follow-up tasks which are very necessary to study in the future.